



## 트럼프 '분단의線' 넘었다...비핵화 협상 재개 합의

美 대통령 처음 북한 땅 밟아  
판문점서 북미 미니 정상회담  
文대통령 합류 첫 '3자 회동'  
트럼프 "생산적인 만남 가졌다"  
金 위원장 "과거 청산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에서 '미니 정상회담'을 열고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전 66년 만에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남북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관련기사 2·3·4·8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측 자유의 집에서 김 위원장과 48분간 단독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가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간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만남은 생산적이었다"며 "앞으로 많은 복잡한 일이 남았지만 우리는 이제 실무진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 실무진 간의 비핵화 협의와 함께 차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고 사실상 김 위원장을 미국에 초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건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좋은 일을 계속 만들면서 앞으로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도 이뤄졌다. 신동민 기자 lawsd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뉴스시스

### 코스피 상승률 G20 중 18위 원화가치 큰 폭 하락 '2위'에

#### 스페셜 리포트

#### 상반기 글로벌 경제 결산

#### G20 휴전에도 하반기 경제 불투명

올해 상반기 한국 주가 상승률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대비 환율은 주요국 중 터키를 빼고 가장 많이 상승(원화 가격 하락)했다. 1분기 성장률도 -0.4%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국 중 16위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갔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하반기 개선 전망도 불투명하다. ▶관련기사 5면

코스피는 올해 상반기(6월 28일 증가 기준) 4.39% 상승했다. 주요 20개국(G20) 증시의 대표 지수는 작년 말 대비 평균 13.45% 올랐다. 코스피 상승률은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20개국 중 18위에 그쳤다.

아르헨티나가 35.77%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러시아(29.49%), 중국(19.45%), 미국 다우(14.03%), 영국(10.37%), 유럽연합(EU)(14.69%), 독일(17.42%), 프랑스(17.09%), 브라질(14.88%), 이탈리아(12.56%) 등은 10%를 넘겼다. 인도(9.22%)와 일본(6.30%) 증시도 한국보다 좋았다. 한국보다 상승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4.03%)와 인도네시아(2.65%)뿐이었다.

코스피는 지난해 말 2041.04에서 6월 28일 2130.62로 상반기 장을 마감했다. 2

#### 주요국 상반기 주가 상승률 (단위 : %)

주식시장	증감률	주식시장	증감률
아르헨티나	35.77	일본(니케이)	6.30
중국(상하이)	19.45	코스피	4.39
미국(다우)	14.03	멕시코	4.03
홍콩(항셱)	10.43	인도네시아	2.65

#### 주요국 달러 대비 변동률 (단위 : %)

주요국	증감률	주요국	증감률
한국(원)	2.86	브라질(레알)	-0.78
유럽(유로)	-0.39	영국(파운드)	-0.83
일본(엔)	-1.97	터키(누리라)	8.55
중국(위안)	-0.17	호주(달러)	0.38

월과 4월 두 번에 걸쳐 2200선을 돌파하며 반등을 시도했고 4월 16일 2248.63으로 연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부진한 수출, 내수침체 심화 등에 따른 경제지표 악화에 발목이 잡혀 세계 증시에서 뒤쳐졌다.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2.86% 상승해 터키 뉴리라(8.55%)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122.50으로 끝난 뒤 올 상반기 1155.50으로 마감했다. 터키 뉴리리가 달러 대비 8.55% 상승해 가장 많이 급등했고 유로(-0.39%), 일본 엔화(-1.97%), 중국 위안(-0.17%) 등은 오히려 환율이 하락(가치 상승)세를 보였다. 달러 대비 환율이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 호주뿐이었다. 터키를 빼고는 -2%에서 3%까지 등락이 크진 않았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은 무역분쟁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 수출 부진 등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www.nextrise.co.kr

벤처·스타트업의 더 큰 세상,  
KDB산업은행이 열어줍니다!



### 국내 최대규모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2019

국내외 유수의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VC, Accelerator, 창업지원기관 등과 함께 KDB산업은행이 국내 최대규모 글로벌 스타트업 Fair를 개최합니다

2019.07.23(화) ~ 24(수) Coex 1층 ~ 3층  
KDB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트럼프 “2~3주내 실무팀 구성”... 3차 북미회담 ‘청신호’

북미 정상 짧은 만남 예상했지만 단독 회담만 48분간 이어져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교착 사실상 122일 만에 대화 물꼬 김 위원장 “두 나라 평화의 약속” 문 대통령 “비핵화 큰 고개 넘어”

대북제재 완화 등 북미간 이견 실무협상 장기화 가능성 우려도

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이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분계선에서 만났다. 70년 묵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남북 관계가 이번 정상 회동을 계기로 북미가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과 남 사이에는 분단의 상징이고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는 이 자리에서 적대적인 두 나라가 평화의 약속을 하는 것이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이번 만남이 사전에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냐는 인식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오늘 아침 의향을 듣고 나도 깜짝 놀랐다”며 “(전날) 오후 늦은 시각에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SNS(소셜네트워



문재인(오른쪽부터)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경기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 집에서 회담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며 나오고 있다. 뉴스

크서비스)에 올렸지만 김 위원장이 오지 않았으면 민망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초 판문점서 짧은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이번 만남이 한 시간이 넘는 북미 정상의 ‘미니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점에서 조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건너와 “바로 지금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라고 밝혀 3

차 회담은 미국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122일 만에 사실상 대화를 복원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노이 북미 협상 결렬로 인해 북

미·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던 만큼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뒤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 북미 정상회담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북미 간 이견이 커 실무협상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영변 핵 폐기가 비핵화 입구’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그런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된다면 그때 국제사회는 제재완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신동민 기자 lawsdm@

## 트럼프, 즉석에서 김정은 백악관 초청

66년 만에 분단현장서 3자 약속 트럼프, 먼저 北 넘어가 기념촬영

남북미 3국 정상이 30일 역사상 초유의 판문점 깜짝 회동을 가져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5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인 판문각 앞까지 월경해 문 대통령의 1차 남북 정상회담 때와 비슷한 모습을 연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는 순간이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오울렛초소(OP)만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해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두 정상은 북측에서 15~16 걸음을 걸어간 뒤 잠깐 멈춰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한 뒤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 남측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에서 정전선언이 이뤄진 지 66년 만에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그를 백악관으로 초청하려고 한다”고 말해 3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즉석에서 정해지는 모양새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인민복을 입고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해 하노이 정상회담 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가 무색할 정도였다.

남북미 세 정상은 잠시 인사하고 동그렇게 모여 대화를 나눈 뒤 판문점 자유의 집으로 이동해 북미 단독회담을 했다.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후 122일 만의 북미 정상 간 회담이 재개됐다.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은 별도의 장소에서 기다려 이번 회담의 주역인 북미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애초 10~20분간의 짧은 만남이 예상됐지만 단독회담만 두 배 이상 진행돼 비핵화와 관련한 두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방문에 앞서 문 대통령과 DMZ 오울렛초소(OP)를 찾았

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업 재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대북제재 완화에 엇갈린 시선을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DMZ 방문과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협상카드를 다시 제재완화를 꺼낼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어 두 정상은 DMZ 내 미군 부대인 캠프보니파스의 장병 식당에서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DMZ 방문은 몇 달 전부터 예정된 일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친구로서 DMZ 방문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밝혀 문 대통령의 친분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오전 11시 정상회담부터 오후 5시 10분께 판문점을 떠날 때까지 약 6시간 10분 정도를 함께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 북-미 심야 판문점 실무 접촉 역사적 ‘DMZ 3자 회동’ 성사

비건, 문 대통령 만찬 불참 북측 통일각서 사전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30일 오후 사상 첫 판문점 회동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북한과 미국의 실무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제의로 만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동안 긴박하게 움직인 덕분이다. 전날 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과 극비 회동해 양국 정상의 만남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문점 회동은 지난달 29일 오전 7시 51분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에 머물던 중에 트위터에 “그곳(한국)에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비무장지대)에서 그를 만나 악수하고 인사(say Hello)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당국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제안이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오후 1시 6분께 담화를 통해 이번 만남이 성사될 경우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하면서 전격

회동 가능성을 높였다.

양국 정상의 만남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양측이 움직였다. 미국은 우선 북측과 가장 즉각적인 소통 창구인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유엔사-북한군 간의 직통전화로 ‘북미 정상의 DMZ 회동’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고, 북측이 이에 즉각 호응하면서 준비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북한의 대면 접촉은 지난달 29일 밤늦게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가 엘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과 함께 헬기를 타고 직접 판문점으로 가서 북측 인사와 만나 경호와 동선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건 대표와 후커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때 북측과 회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와 만난 북측 인사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선희 제1부상이나 김혁철 국무위 대미특별대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민 기자 lawsdm@

# 총수들 일으켜 세워 찬사... “美에 더 투자해달라”

이재용·정의선·최태원 등 거명하며 美 일자리 창출 기여 감사 뜻 전해 3.6兆 약속한 신동빈엔 특급 대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를 단행해온 한국 기업에 감사를 표했다. 나아가 향후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당부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재계 총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미국에 투자해준 한국 기업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준 기업 총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재계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삼성과 현대차, SK, 롯데, CJ, 두산 등을 일일이 거명한 뒤 “이들 기업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리에서 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을 일으켜 세우며 감사의 뜻을 직접 전했다. 이어 “지금보다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촬영에 앞서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에 적절한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기업들을 필두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서는 격한 친근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했던 신 회장과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인 뒤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대해 “굉장히 감탄했다. 아름다운 타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애초 재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업인 회동에서 중국 화웨이에 대한 압박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 재개 합의가 이뤄진 것 때문인지 이와 관련한 발언은 없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은 계속 이어왔고 아쉽게도 최종 합의는 못 했지만 오사카 회담을 계기로 협상은 정상궤도로 복귀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굉장히 강한 인물

이고 영리하며,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2017년부터 양국이 수억 달러 이상의 상호 투자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인들의 추가 투자를 거듭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다”면서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 무역협정을 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5대 그룹 총수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수석부회장,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이 참석했다. 다만 LG 그룹에서는 구광모 회장 대신 권영수 부회장이 자리에 함께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그룹 회장 등도 참석했다. 허영인 SPC 회장, 박준 농심 부회장 등 유통·식품업계 대표들도 다수 초청됐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삼성전자, AT&T와 ‘5G 맞손’ 美 반도체 공장에 ‘혁신존’ 오픈

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사 AT&T와 손잡고 텍사스 반도체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한다.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해 직원들의 건강 및 안전을 강화하고, 공장도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한다.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의 ‘5G 혁신존’에 있는 임직원 건강을 위한 스마트 장비. 사진제공 삼성전자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주 오스틴 공장에 미국 이동사 AT&T와 협력한 ‘5G 혁신존’을 오픈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관련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와 AT&T는 제조 환경 개선과 스마트 설비 구축, 5G 관련 아이디어와 기술을 탐색할 계획이다.

예컨대 5G 및 센서를 통해 응급 상황에 처한 직원을 더 잘 찾고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아가 5G 기술을 통해 공장 자동화 프로세스 효율성을 높인다. 자동화 장비의 대규모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전 유지 보수를 더 원활하게 업그레이드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5G를 통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자들과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미국 지사의 마크 루이스(Mark Louison) 수석 부사장 겸 네트워크 사업 본부장은 “5세대 혁신 존은 5G 기술의 힘을 발휘해 제조 산업에서 더 높은

효율성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며 “향후 5G를 통해 미래 스마트 공장을 위한 길을 활짝 여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5G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저녁 삼성그룹 영빈관인 용산구 이태원동 ‘승지원(承志園)’에서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5G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반도체 등 미래 중동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IM부문장인 고동진 사장도 같은 날 신라호텔에서 도이치텔레콤 관계자 등을 만나 ‘위드 갤럭시’ 행사를 열고, 5G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록 기자 syr@

## 트럼프 “한미FTA 양국 이익”... 車관세 피해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적자가 20% 이상 감소했고, 올해부터는 개정된 FTA가 적용되고 있다”며 “(한미FTA가) 양국에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전례 없는 관계를 자랑하고 있고 굳건한 경제 관계를 강화해 왔다. 그 부분에 대해 좋게 평가한다”며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는 5대 그룹 총수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정 부회장이 나선 자리에서 자동차 부문을 특정해 “균전한 관계의 자동차 기업 적용”을 언급한 만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한 배경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자리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의 실질적인 효과를 언급한 만큼, FTA 재협정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KB 금융그룹 | 국민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가족 모두 건강해야 하니까

## 희망 가득 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날을 살아갑니다  
아픈 날도, 아프지 않은 날도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를 든든하게 케어해주는  
건강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생활 속 다양한 보장과 케어를 하나로!  
**특별한 KB The드림365건강보험II**

•손해보험협회 식약필 제12125호 (2019.01.07)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한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계 경제 최악 피했지만... 협상 돌파구 찾기 '난항'

G20 정상회의 개별회담, 추가 관세 연기하며 무역협상 재개  
美기업들 "환영" 밝혔지만 일각선 "일시적 시간별기" 평가  
"협상 타결 확률 45% 불과... 내년 재선 의식한 결정" 지적도

세계 경제의 운명을 가를 '세기의 담판'으로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결과에 세계가 일단 안도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진 개별 회담에서 추가적인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지난달 초 이후 교착상태였던 양국 간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무역전쟁을 임시 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휴전'이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휴전 기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데다 무역협상 타결을 가로막아온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중이 협상 궤도에 올랐다고는 하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G20 정상회의 둘째날인 지난달 29일 오사카 시내에서 1시간여에 걸쳐 개별 회담을 가졌다.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의 회동이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은 무역협상 책임자인 류허 부총리 외에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중산 상무부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무역 문제였다. 미중은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90일간 휴전하기로 하고, 올해 1월부터 협상을 본격화했다. 협상은 대부분 정리가 됐지만 중국의 산업보조금이나 발동된 추가 관세 취급을 놓고 대립, 5월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다. 이번 회담은 중단된 장관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그동안 새로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고관세를 부과 현황

중국			미국		
340억 달러	대두 등에 25%	2018년 7월	산업기계 등에 25%	340억 달러	
160억 달러	폐지 등에 25%	8월	반도체 등에 25%	160억 달러	
600억 달러	LNG 등에 5~10%	9월	가전 등에 10%	2000억 달러	
	-	2019년 5월	25%로 인상		
400억 달러	10~25%로 인상	6월	-	3000억 달러	
	보복?	당분간 보류	스마트폰 등에 최대 25%?		
대미 수입 약 1500억 달러			대중 수입 약 5500억 달러		

※ 출처: 니혼게이지신문

않는 '휴전'에 합의할지가 관건이었다. 미국은 3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만큼 자칫 이번 정상 회담이 틀어지면 확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참사였다.

회담은 일단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화웨이테크놀로지 및 미국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인상은 없다"며 "앞으로 협상을 계속한다. 중단된 부분부터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의 회담은 매우 훌륭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가 관세 부과에 반대했던 타깃과 월마트 등 미국 600개 기업들은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최종 합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만 나오는 건 아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이번 회담에 대해 "일시적인 시간별기"라고 평가했다. 어디까지나 임시 휴전이며, 어떤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구체적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블레이크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피터 북크바르 최고투자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임시 휴전이다.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다"며 "여전히 2500억 달러의 제품에 25%의 관세가 걸려 있는 점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유라시아그룹도 "올해 미

중 무역협상 타결 확률은 45%"라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니혼게이지신문은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뤄졌지만,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의 내용을 말할 때는 말투가 통명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회담은 2시간 반이 걸렸지만 이번 회담은 그 절반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지난번처럼 휴전 기간을 90일로 정한다거나 기술 이전강요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의아해했다.

아르데니리시치의 에드 아르데니 사장은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로서는 괜히 무역전쟁을 확대해 경제에 문제를 일으켜 선거에서 패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회담은 어디까지나 트럼프가 재선을 의식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가 이번에 대중 관세 인상을 철회하더라도 연말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이번 회담이 결렬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021년 말까지 1조2000억 달러 증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숨통 틈 화웨이... 美 블랙리스트 제외는 '글썽'

트럼프 "美기업과 거래 허용"... 안보 우려엔 "무역협정 주시"

"트럼프가 화웨이에 구명줄을 던져줬지만 정박지까지는 갈 길이 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한 금수 조치를 사실상 해제하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의 안보상 문제가 없는지 검증될 때까지 트럼프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서 배제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에 대한 금수 조치와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량의 미국 제품이 화웨이의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며 "거래를 계속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5월 정부의 허가 없이 미

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등을 구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 엔티티리스트(EL),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화웨이와 68개 관계사를 추가하고, 동맹국에도 거래 제한 조치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었다. 그러다가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입장을 바꿨다.

▶관련기사 8면

화웨이는 지난해 12월 명안저우 최고 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가운데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궁지에 내몰렸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를 일부 허용했어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 상무부가 블랙리스트에서 화웨이를 제외시킬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메시지도 애매모호했다. 그는 화웨이의 안보 우려에 대해 "매우 복잡한 문제다. 무역 협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고 덧붙이며 계속 주시할 생각을 나타냈다.

미국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의 샘 색스펠로우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더욱 강경한 자세를 요구해온 일부 미국 정치인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국 당

국자들은 화웨이 장비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이 네트워크를 감시하거나 무너트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시 주석과의 회담 후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일부를 완화해줬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시 주석과 미국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공색한 변명을 내놨다.

색스펠로우는 "화웨이 거래에 대한 반발은 중국의 또 다른 통신장비업체 ZTE 때보다 10배는 더 나쁠 것"이라며 "하지만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중국이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태양과 바람의 힘을 전기로 바꾸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자동차는 탄소 없이 달리고, 공장 및 빌딩은 에너지의 낭비를 똑똑하게 잡아냅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공사 KEPCO**

# 韓 0.4% 역성장할 때, 인도·폴란드 1.4~1.5% 성장

## OECD·G20 1분기 성장률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과 동유럽 국가는 국제 경기 하향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적표를 거두고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주요 20개국(G20) 1분기 잠정 성장률(전 분기 대비)에 따르면, 한국은 성장률이 공개된 17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0.4%로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올 1분기 성장률은 2008년 4분기 -3.3%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0여 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표다. G20 국가 중 한국보다 성장률이 낮은 나라는 제조업과 광산업 부진으로 장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0.9%)밖에 없었다.

OECD가 5월 발표한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아예 꼴찌였다. OECD 회원국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을

한국, 5분기 만에 감소세 전환  
인도·中 1.4%, 美 0.8%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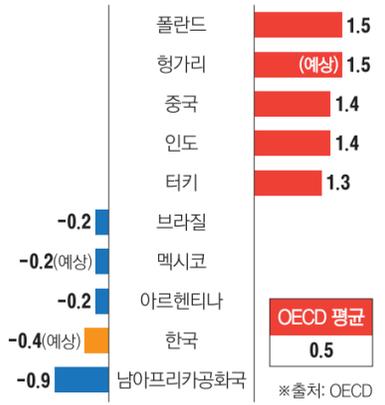
올 韓 경제성장률은 2.4% 전망  
인도 7.2% 中 6.2% 인니 5.1%

포함해 멕시코(-0.2%), 라트비아(-0.1%), 노르웨이(-0.1%), 칠레(-0.02%) 등 다섯 나라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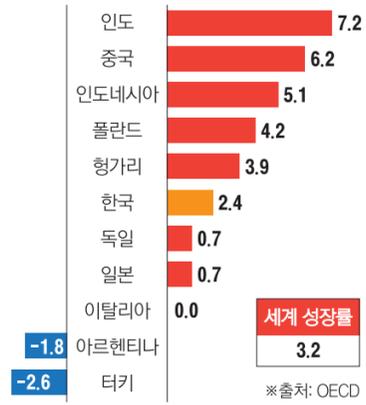
한국이 부진에 빠진 사이 신흥국들은 성장동력을 유지했다. G20 국가 가운데는 중국과 인도 경제가 나란히 1.4%씩 성장하며 가장 좋은 성적표를 거뒀다. 터키(1.3%)와 인도네시아(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월 호황과 무역 전쟁 등으로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역시 0.8%로 5위에 올랐다.

시아를 OECD 회원국 전체로 넓히면 동유럽 국가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올 1분기 1.5%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OECD 내 성장률 1, 2위에 올라섰다. 두 나라를 포함해 리투아니아(1.0%), 슬로바키아(0.9%), 슬로베니아

## OECD 회원국·G20 올해 1분기 성장률 (단위: %)



## OECD 회원국·G20 올해 성장률 전망 상하위 5개국 (단위: %)



(0.8%) 등 OECD 성장률 상위 10개국 중 5곳이 동유럽 국가다. 저렴한 인건비가 강점인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의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국가와는 달리 한국의 성장동력이 앞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심각하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4%로 지난해(2.7%)보다 0.3%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잡은 2.6~2.7%보다 0.2~0.3%P 낮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3.2%)와 비교해도 0.8%P 밑돈다. OECD 전망이 맞다면 올해 성장률은 2012년(2.3%)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다른 대내외 기관의 전망도 비슷하다. 최근 국회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 잇따라 올해 성장률 전

망은 2.6%에서 2.4%로 낮췄다. 국제 신용평가사가 예상하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더욱 비관적이다. 피치는 2.0%, 무디스는 2.1%를 예상했다.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 부진이 악영향을 미쳤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지만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들도 있다. 폴란드는 올해 4.2% 성장하며 OECD 회원국 중 최고 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와 아이슬란드 등의 예상 성장률도 각각 4.0%, 3.9%였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미국이다. OECD는 미국이 올해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노믹스를 앞세운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성장률 경쟁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대내외의 예측대로라면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6.6%에서 올해 6.2%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력 향상에 투자를 집중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 3월 수출액 한국 8.3% 급감할 때 中 14.2%·英 0.2%↑ 美 0.7% 감소

일 실업률 2년새 3.1%→2.4%  
한국은 3.8%로 되레 0.1% 늘어  
美에는 19년 만에 역전당할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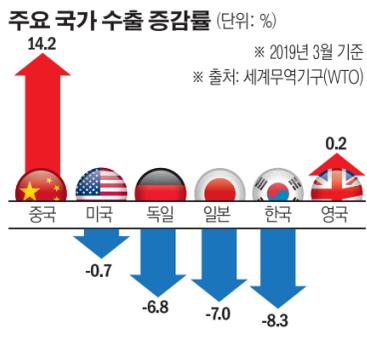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반도체 불황 등 대외여건 악화는 유독 우리나라에 가혹하다. 국가별로 중국, 품목별로 반도체 의존도가 큰 탓에 상위국 중 이탈리아 다음으로 수출액 감소가 가파르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 경기도 침체되면서 실업률은 19년 만에 미국에 역전당하게 생겼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3월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8.3% 감소했다. 수출 상위 10개국 중 이탈리아(-8.4%) 다음으로 많이 줄었다. 중국과 영국이 각각 14.2%, 0.2% 늘고 미국의 감소 폭이 0.7%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의 수출액은 4월과 5월에도 각각 2.0%, 9.4% 감소했다. 6월에는 1~20일 기준으로 10.0% 줄었다.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다. 5월에는 대중국 수출이 20.1% 감소하고, 품목별로는 반도체(-30.5%), 석유화학(-16.2%), 디스플레이(-13.4%), 무선통신기기(-32.2%) 등 주력 품목들이 모두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다른 나라들도 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타격이 우리만큼 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고스란히 내수 불황으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감소(-1.7%)로 전월보다 0.5% 줄었다. 설비투자도 8.2% 줄며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고용시장에선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가입국들의 평균 실업률(이하 계절조정)은 2016년 6.3%, 2017년 5.8%, 지난해 5.3%로 개선됐다. 같은 기간 일본의 실업률은 3.1%에서 2.8%, 2.4%로 하락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 3.7%, 2017년 3.7%, 지난해 3.8%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올 들어서



### OECD가입국들의 실업률 추이

	2017년	2018년	2019년 1월	2월	3월	4월
OECD 전체	5.8	5.3	5.4	5.3	5.3	5.2
미국	4.4	3.9	4.0	3.8	3.8	3.6
일본	2.8	2.4	2.5	2.3	2.5	2.4
영국	4.4	4.0	3.8	3.7	.	.
독일	3.8	3.4	3.2	3.2	3.2	3.2
프랑스	9.4	9.1	8.9	8.7	8.7	8.7
캐나다	6.3	5.8	5.8	5.8	5.8	5.7
이탈리아	11.2	10.6	10.5	10.5	10.2	10.2
한국	3.7	3.8	4.4	3.7	3.8	4.1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OECD 가입국들은 월간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은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모습이다.

특히 최근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실업률이 미국을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한국의 월간 실업률은 1월(4.4%)과 4월(4.1%) 미국(각각 4.0%, 3.6%)보다 높았다. 경제·인구 규모가 클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 실업률도 높다는 점에서 양국의 실업률 역전은 이례적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간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았던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였던 1998~2000년뿐이다.

다만 하반기부터 수출은 물론, 국내 제조업 경기도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019~2020 경제전망'에서 수출액이 상반기 0.1% 감소에서 하반기 3.3% 증가로 전환되고, 설비투자는 10.1% 감소에서 0.8% 증가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투자하는 누구나 하는 거야, 그래야 하는 시대니까**

100세 시대,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  
60세에 은퇴해도, 직장이 없어도  
누구나 잘 살아야 하니까  
이제 투자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NH투자증권이 함께 하겠습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일 제9-02018(2019-06-03~2020-06-0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50  
CREATE

# 국회 정상화에도... 갈 길 먼 추경안 처리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까지 갈 길이 멀다. 추경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데다, 추경이 심의돼도 적자국채 발행을 둘러싸고 기존 공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서다.

올해 추경의 최대 쟁점은 3조6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다. 정부는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계잉여금 4000억 원과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 원, 적자국채 발행 3조60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미세면지

## 3.6조 적자국채 놓고 공방 예상 野 “예비비 먼저, 필요하면 추경” 기재부 “규모 줄이면 효과 없어”

대응에 2조2000억 원,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년세대의 미래를 끌어다 정권용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앞으

로 국민의 빛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예비비 3조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추경 사업들에 예비비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3조 원 중 1조8000억 원은 자연재해 대응에 사용되는 목적예비비이고 나머지 1조2000억 원이 일반예비비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업은 미세면지 대응 정도인데, 이마저도 하반기에 다 지출해 버리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이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예비비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경 규모를 편성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추경이 적기에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경기 대응용으로 편성한 4조5000억 원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서 더 줄이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거의 없다”

며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서 예산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규모를 잘라내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 예산도 깎아야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추경을 굳이 집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7월 중 추경안이 처리되면 실적행은 8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라도 추경이 확정된다면 정부는 올해 3분기 내에 추경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강경화-이방카 ‘女 역량 강화’ 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방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보좌관이 30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여성 역량 강화 회의’에서 개도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성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日, 한국에 경제 보복 나서나

### 원자재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 “징용 판결 불만 표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제재에 나선다. 30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TV·스마트폰의 유기 EL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7월 1일 발표하며, 한 달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산케이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

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 반도체 기업은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야 한다.

산케이는 수출 규제로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부터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서영 기자 jyoung2@

## ‘수출계약 보증’ 1000억 조성... 약정은 10억뿐

### 중소 무역금융 공급해도 성과 저조... 절차 등 복잡해 이용 적어

중소·중견 수출기업 자금지원책인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과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의 약정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정부가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발표한 ‘수출 활력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4월에 신설된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과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의 약정 실적은 현재까지 각각 10억 원, 1000억 원 정도로 확인됐다.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는 각각 1000억 원, 1조 원이다. 수출계약 기반 특

별보증의 경우 목표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수출기업의 실적, 신용도와 상관없이 계약이행능력, 수입자 신뢰성 등만 심사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보)가 보증해 주고 은행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수출계약은 체결했으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상으로 한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은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이전에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역

보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수출대금을 조기 회수해 기업경영 및 추가수출을 위한 자금 조달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3월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발표 당시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역금융 공급 확대가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1일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1호 발급’ 기념식에서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최대한 분담하고,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약정 실적은 성 장관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이상홍(오른쪽) 에너지공단 부이사장과 이호성 KEB하나은행 부행장이 지난달 28일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및 우수기업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제공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공단, KEB하나銀과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맞손

### 자금관리·해외 진출 등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28일 KEB하나은행 영남영업그룹에서 KEB하나은행과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및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에너지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공단은 KEB하나은행과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및 우수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에너지 기업들이 KEB하나은행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자금관리와 해외 진출·투자·경영관리 컨설팅을 받아판로 개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공단과 KEB하나은행은 기업네트워크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통한 에너지 분야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상홍 에너지공단 부이사장은 “에

너지 분야의 신기술 및 혁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효과적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 공단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KEB하나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정보를 접하고 혜택을 받도록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성 KEB하나은행 부행장은 “에너지공단과 협력해 우수 에너지 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과 금융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최근 에너지 분야 창업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 분야 적정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공모전을 실시해 12개 기업(팀)을 선정했다.

12개 기업은 △멘토링 및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2019 에너지대전 참가부스 △에너지관련 해외연수 △판로 개척 등을 지원받는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현장에서 말뿐인 ‘서발법 추진’... 8년 지나도 변한 게 없다

### 서비스산업 ‘보건의료’ 포함이 쟁점 여야·정부 입장차는 여전

### 노력없이 추진하는 건 쇼에 불과

정부가 지난달 26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를 계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발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구호뿐이다. 서발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보건의료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정부의 반대 입장이, 여야 갈등도 여전하다.

2011년 발의된 서발법은 2015년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서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보건의료 제외를 요구했다.

그렇게 서발법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서발법이 재발의됐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에 포함하는 데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고,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서발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문제에 일관되게 반대했다.

그런데 26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뜬금없이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됐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서발법 처리를 전제로 한 대책이다. 4대 추진전략 중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립하고 5개년 기본전략을 마련하는 거버넌스 체계화는 서발법이 제정돼야만 가능하다. 이런 대책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것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포장지를 뜯어보니 달라진 건 없었다. 정부는 김경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발법과 입장을 같이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 보건의료를 포함하되 안전장치를 만든다는가, 보건의료 분야 중 공공성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가 하는 절충안은 없다. 그저 지난 8년간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이런 식이라면 서발법 처리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 여야만 바뀌었을 뿐 한쪽은 보건의료 포함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제외를 요구하는 지루한 줄다리기에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발법 처리가 그토록 간절하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건 쇼에 불과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환경분야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모집기간\_2019.6.19~7.12



주유소에 대한 관점을 뒤집으면?  
생활의 스마트 네트워크, SK주유소



# 생각한다 i 더극소상



자동차 소재에 대한 상식을 뒤집으면?  
미래자동차 산업을 바꿀 초경량 소재



# 애플 역주행? “맥프로 中서 생산”

### 무역분쟁 불통 틈라 ‘脫중국 러시’에도 비용절감 위해 중국行

애플이 자사 제품 중 유일하게 미국에서 조립하던 전문가용 PC ‘맥프로’ 신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미국을 떠나 중국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대만 콤팩트 컴퓨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맥프로 신제품을 중국 상하이 공장서 생산 중이다. 애플은 그동안 플렉스가 운영하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맥프로 기존 모델을 생산해왔다. 맥프로는 애플이 미국에서 생산해 온 유일한 제품이었다.

맥프로 생산의 중국 이전에 대해 애플 측은 “맥프로 신모델은 미국에서 설계 및 디자인되고 미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들어간다”며 “최종 조립은 전체 제조공정의 일부뿐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러 애플 대변인은 “애플은 미국의 30개 주에서 생산하고 있고 지난해에만 9000개의 미국 공급업체들과 6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WSJ는 애플에서 맥프로의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이를 어디에서 생산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문제 삼아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플의 이번 결정은 의외라는 분석이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는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애플이 가격 인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 뿐이라며 애플을 압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애플이 맥프로 생산을 중국에서 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비용 절감이 고려됐다고 WSJ는 분석했다. 부품 공급업체들이 상하이에 몰려 있어 운송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플렉스가 운영하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은 세제 혜택을 받는 ‘텍사스 엔터프라이즈 존 프로젝트’(Texas Enterprise Zone project)로 지정받아왔는데 이 특별지위가 이번 달 종료되는 것도 영향을 줬다고 WSJ는 설명했다.

또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인력 운영 및 수급 문제도 지적됐다. 제조 관리 책임자 출신인 앨런 헨러한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오스틴 공장의 근로자 가운데 80%가 하루 8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을 받는 계약직 근로자들”이라면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음 고대 근무자들이 오기도 전에 일손을 날버린다”고 지적했다. 헨러한은 “애플이 결국 미국에서의 생산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평가했다.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행을 선택한 애플을 두고 폴 개그너 IHS마켓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의 생산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보다 비용이 덜 든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佛더위... 유럽, 45도 최악의 폭염 유럽 전역이 기록적 폭염에 타들어가는 가운데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관광 명소 에펠탑 앞 트로카데로 분수대에서 사람들이 공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파리의 기온은 유럽 관측 사상 처음으로 45도가 넘었다. 2003년 폭염으로 3만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유럽에서는 이번 폭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파리/AFP연합뉴스

# 사우디-러시아 감산연장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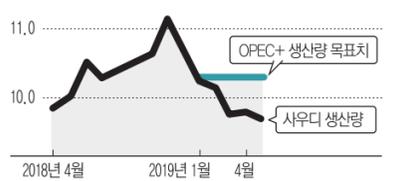
### ‘OPEC+’서 6~9개월 연장 가능성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들이 협조 감산 기한을 연장할 전망이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들의 공조 감산을 7월 이후에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초 열리는 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플러스’ 회동에서는 감산 연장 결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OPEC플러스는 7월 초 회의에서 당초 6월 말까지로 정한 공조감산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며,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가 이에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감산 규모는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 추이 (단위: 100만 배럴/일)



변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연장 기간이 6개월이 될지 9개월이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굳이 G20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되지 않은 OPEC 및 OPEC플러스 회의 결과를 미리 공개한 건 석유 카르텔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OPEC플러스는 유가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하루 120만 배럴 감산에 합의, 6월 말로 기한을 맞았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합의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며 “어쨌든 러시아와 사우디는 지난해에 동의한 생산량 합의의 지속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산이 2020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고도 했다. OPEC플러스 참가국 정상이 이런 말을 한 건 푸틴이 처음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화웨이 제재 풀릴라... 이빨 드러낸 노키아

### “중국산 5G, 안보에 위협” G20 화해무드에 반사의 농칠까 맹공

핀란드 통신장비업체 노키아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를 공격하고 나섰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재미를 보던 라이벌 노키아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개별 회담을 갖는 등 미중이 화해 무드를 조성하며 화웨이 제재가 완화되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BBC방송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마커스 웰던 노키아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안보에 취약하다”며 “5G 네트워크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웰던은 특히 미국의 한 안보회사가 퍼

낸 화웨이 장비의 안보 취약성 관련 보고서를 언급하며 “분석 결과, 화웨이 장비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이어 “화웨이가 보안을 강화하거나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영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키아는 5G 통신 장비 판매에서 화웨이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때 세계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했던 노키아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에 밀려 고전해 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견제에 나서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 이동

통신업체 T모바일과 35억 달러 규모의 5G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화웨이의 부진을 틈타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라지브 수리 노키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정부의 화웨이 압박을 계기로 보안을 우려하는 이동통신업체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방침을 밝히자 노키아가 다급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키아 측은 “개인의 의견일 뿐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에만 집중한다”며 “라이벌사의 취약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관심해어 정보센터 [www.hauri.co.kr](http://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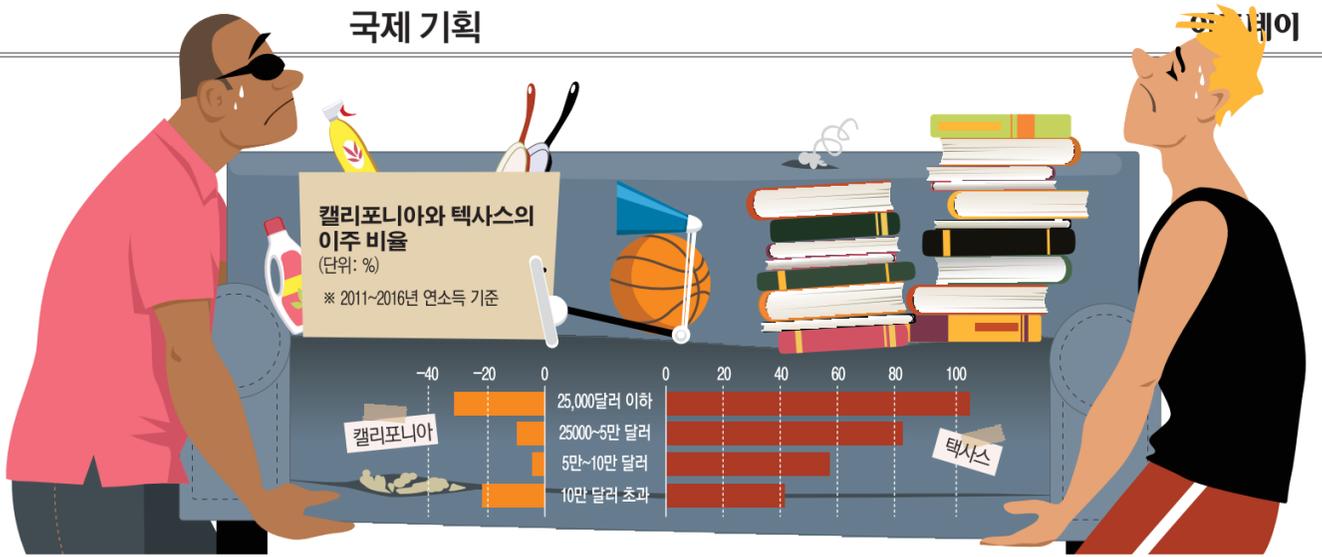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38 (여말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구해줘 홈즈”

1960년대 ‘캘리포니아 드림’이란 노래가 히트할 정도로 동경의 대상이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이 짐을 싸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떠난 사람들의 상당수가 텍사스로 몰려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배경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연간 캘리포니아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 수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2.5%, 100만 명이 다른 도시로 이주했는데 그들 가운데 4분의1 이상이 택한 곳은 텍사스였다.



# “금수저 아니면 도둑질해야 집사”... 악몽의 캘리포니아

높은 집값·세금·규제에 ‘탈출 행렬’ 1990년 이후 유입보다 유출 많아 기업도 반기업문화 지쳐 이주 고민

사람들만 이주하는 것도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요 기업들도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고 있다. 지난해엔 미국 최대 의약품 유통기업인 맥케슨, 편의점 공급업체 코어마크, 미국 스무디 1위 브랜드인 잠바주스 등이 ‘탈(脫)캘리포니아’ 행렬에 동참했다.

대다수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 이외 지역에서의 고용을 대폭 늘리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평가받는 찰스스왑은 텍사스로부터 600만 달러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고 올해 말까지 텍사스에서의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캘리포니아 탈출 행렬의 원인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무엇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 사람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우리 지역의 문제는 감당하기가 벅겁다”며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캘리포니아 드림의 정수인 사회이동성이 위기에 처했다”고 현실을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기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비용을 비롯한 생활물가의 고공행진 탓에 캘리포니아 거주민의 3분의 1이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소득이 5만 달러(약

5800만 원) 이하이면 저학력인 계층의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간계층의 주택 자가비용도 1940년대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 켈리포니아대학의 조엘 코트킨 교수는 “캘리포니아에서 젊은층의 신분 수직 상승은 불가능하다”며 “부유한 부모를 만나거나 은행을 털거나 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형태의 봉건주의가 출현했다”며 “최상위 계층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라고 혹평했다.

두 번째는 세금 문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소득세율(Income tax rate)이 높다. 최고 소득세율이 13.3%에 이른다. 반면,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다. 그 대신 높은 재산세를 물린다. 텍사스 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판매세에서 나온다.

기업들에 대한 세금도 세다. 경제 자문회사 코스몬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최근 여섯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기업과 거주민에 대해 800개 이상의 지방세를 물렸다.

세 번째는 친기업문화 여부다. 텍사스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달리 기업들을 장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이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텍사스 주지사였던 릭 페리가 주도했다. 그는 당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양한 주들을 돌아다니며 기업들을 텍사

스로 유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렉 애보트 현 텍사스 주지사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마지막 원인은 지나친 규제다. 샌프란시스코의 기술회사 대표는 “쿠바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샌프란시스코보다 쉽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CNBC방송은 텍사스가 미국 주들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주’ 1위에 오른 반면 캘리

포니아는 25위에 그쳤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가 고학력 인력풀과 혁신 측면에서 강할지는 몰라도 친기업 성향과 비용 측면만 두고 보면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많은 규제가 결국 주택비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텍사스에서는 건물 허가를 받는데 수개월이 걸리지만 캘리포니아는 수년이 걸린다. 환경영향평가가 길고 비싼 법률비용이 수반된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 대

표는 “나도 친환경주의자다.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정상이 아니다. 모든 게 더디고 느리다”고 지적했다.

지금 이대로는 캘리포니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1% 인구가 소득세의 46%를 내는 등 부자들이 세금 부담을 떠안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 “과도한 규제로 주택공급 막혀” 트럼프 ‘싼 집 짓기’ 팔 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저렴한 주택 개발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를 위한 백악관 협의회를 창설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협의회에는 8개의 연방 기관이 포함된다.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규칙들이 더 이상 관련이 없음에도 과도하게 적용돼 왔다”며 협의회 창설 배경을 설명했다. 카슨은 장관으로서 그의 임기 동안 민간 부문의 주택 건설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장벽 제거에 앞장서 왔다. 그는 3D 프린터를 사용해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짓는 공장들을 견학했고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진 주택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미국에서 주택 건설은 통계 수치가 작성된 이후 6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결과, 젊은 계층의 생애 첫 구매 주택부터 은퇴자를 위한 임대 주택까지 모든 유형의 주택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주택 연구 공동센터가 이날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한 해에만 인구 성장과 노후화한 주택 수

를 고려해 공급돼야 할 주택 수보다 26만 채가 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택 가격은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하버드대의 보고서는 중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가 2011년 3.3미만에서 2018년에는 4.1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급증했던 2005년엔 이 수치가 4.7까지 올랐다고 공급 부족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급 부족이 나타난 데는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WSJ는 분석했다. 지역 구획 규정 및 토지 사용 규제는 1970년대 이후 늘었다. 개발업자들에게 도로, 학교, 하수처리시설 건설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고 지방당국들도 토지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건물 짓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했다.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주택 시장과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주택 개발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의 폐지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재무부, 노동부, 환경보호국 및 농업부 대표가 포함될 예정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신제품**

세 용량: 위생이력 코디리스 구강세정기  
 모델명: AQ-230  
 구 방 용: 100~240V / 50~60Hz  
 선 길이: 100~240V / 50~60Hz  
 소비전력: 0.7~1.7W  
 제품크기: 140x165x275 (mm)  
 제품무게: 28g  
 충전시간: 200분  
 배터리 수명: 1,400회 / 분  
 3가지 모드: Clean, Soft, Massage

**치과 전문가 인정, 추천!**

완전히 새로워진  
 아쿠아픽 코디리스 구강세정기 AQ-230

- 편리한 휴대성**  
 휴대 가능한 최적인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구강관리 가능합니다.
- 분당 1,400회 맥동수류**  
 초경량 바디에서 쏟아져 나오는 분당 1,400회 맥동수류로 치아와 잇몸 사이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 더욱 커진 용량**  
 200ml로 더욱 커진 용량 용량 (2종 저사 용량: 150ml)
- 프리볼트 (Free Voltage)**  
 프리볼트 (Free Voltage) 적용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무접점 충전 방식**  
 충전부위에 물기가 떨어져도 안전한 무접점 충전 방식과 IPX 7의 방수 등급

치솔질 후에도 남아있는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쿠아픽 무선 구강세정기로 싹~**

구강관리, 치솔질만으로 충분할까요?  
 아쿠아픽 코디리스 구강세정기(AQ-230)는 강력한 맥동수류로 치아와 잇몸 사이 숨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주어 치아와 잇몸을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구강관리 필수 제품입니다.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 치솔질만으로 구강관리가 불안하신 분
- 교정치료 중이신 분
- 임플란트 중이신 분
- 보철물 장착 환자
- 잇몸이 약하신 분
- 임신부나 어린이
- 외부활동이 많으신 분
- 구취가 고민이신 분

음식을 찌꺼기 제거  
 잇몸마사지 효과

교정치료의  
 효율적인 치아관리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

안정감과 안전성을 더한  
 새로워진 디자인

Clean / Soft / Massage  
 3가지 세정 모드

아람비스토어 단독 특가 **42,666원 X 3개월 무이자 할부** | 온라인 주문 [www.arambi.kr](http://www.arambi.kr) | 080-388-7000

# ‘키코’ 최대 30% 배상 유력...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 이달 중 분쟁조정위 결론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키코사태를 10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올린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다, 배상 권고가 나 오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9일, 늦으면 16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사태 재조사에 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윤원장이 재조사를 약속한 지 1년 만이다. 애초 상반기에 매듭지으려 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일정이 미뤄졌다.

분쟁 조정 대상은 남화통상과 원글로 벌미디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 금액은 총 1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 불완전판매 초점 10년 만에 재심판

4개 업체 피해액 총 1500억 추정  
은행 부담 배상액 최대 450억

## 은행 제재 근거 논란

소멸시효 완성 ‘법적 다툼’ 못해  
업계 “권고안 수용 땀 배임문제”

당시 키코 때문에 30억~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지만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을 거치지 않아 이번 분조위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환 헤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외환

키코사태 주요 쟁점	금융감독원	은행
01 대법원 판결 반복	대법원이 안 다른 부분만 재조사	판결했는데 분조위 상정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02 피해보상	불완전판매 인정 때는 추가보상 해야 할 수도	판결 수준 이상 보상해주는 건 배임 소지 있어 불가능
03 상품설계 오류 가능성	과거 금융감독 당국이 제대로 조사 안해서 못 밝힌 것	법원에서도 키코 상품의 사기성 인정 안해
04 불완전판매 가능성	고객은 복잡한 금융공학을 일일이 알 수 없는데, 환율 상승 시 큰 손해 본다는 구체적 설명 없어	계약서에 환율 상승시 2배 매도 의무를 설명한데다, 기업들도 스스로 계약 체결

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 당시 대부분의 피해기업은 ‘사기상품’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불

완전판매다. 당시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하면서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당국 측 판단이다.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이 부담할 배상액은 300억~450억 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윤 원장이 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분조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은행들이 반기를 들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현재 이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걸 분조위에 상정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소멸시효도 완성돼 즉시연금처럼 법적으로 다뤄볼 여지도 없다.

하지만 은행들이 정무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권고안을 ‘전면 거부’하면 금융당국과 각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까지 “분조위는 키코사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경영진이 추후 배임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도 “분조위 결론이 나면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신한銀 ‘FDS 랩’ 신설... AI로 보이스피싱 차단

신한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하고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이번 종합대책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신한은행은 금융사기 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랩’을 신설한다. FDS랩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시키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금융사기 거래 탐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함께 담당하게 될 FDS랩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 5명 내외로 구성돼 이달 초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부터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거래 시 입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일 경우 거래 화면에 ‘보이스피싱 피



진옥동(왼쪽) 신한은행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본점 영업부에서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해 경고”를 표시해 고객의 주의를 유도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는 보이스피싱 및 의심거래 계좌와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진산 기자 jinsan@

## 고령층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가족에게 알린다

### 10월부터 지정인 알림서비스 65세 이상 희망자 대상 실시

65세 이상 금융소비자가 부적절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상품 가입 시 지정인에게 알리는 서비스가 10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안 후속 대책으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개인 가운데 본인이 서비스를 희망한 사람에 한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서비스 신청인이 보험과 금융투자 상품 가운데 위험이

큰 상품에 가입할 경우 우선 알리기로 했다. 금융상품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 계약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기한 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 과장은 “고령층이 상품을 모두 다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닌 일률적 적용”이라며 “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알림 서비스 보험·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우선 적용된다. 중신보험과 중대질병(CI) 보험, 변액보험 등이다.

다만,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금융투자 상품에는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

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 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된다.

판매 채널별로는 대면 상품 가입의 경우를 우선 적용한다.

김 과장은 “인터넷 판매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했고, 전화 판매는 고령자 청약 철회 기간이 45일로 연장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정인에게 전달되는 안내 메시지에는 상품명과 금융사, 가입 시점 등이 통보된다.

그는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되면 지정인과 가입자가 적합한 상품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www.douzone.com

#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Cloud Center

자동분개

자동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 법인세 MRI 검사
- 부가가치세 MRI 검사
- 상업등기 알림서비스
- 4대보험 신고 알림서비스

####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당신의  봄

나 장해이의 모험이  
 스토리책 배우기! WHY?  
 할 수 없다면 어때, 도전해보는거지~  
 \*Adventure\*

모험에는  
 좋은 모험이  
 필요하죠!

Let's GRO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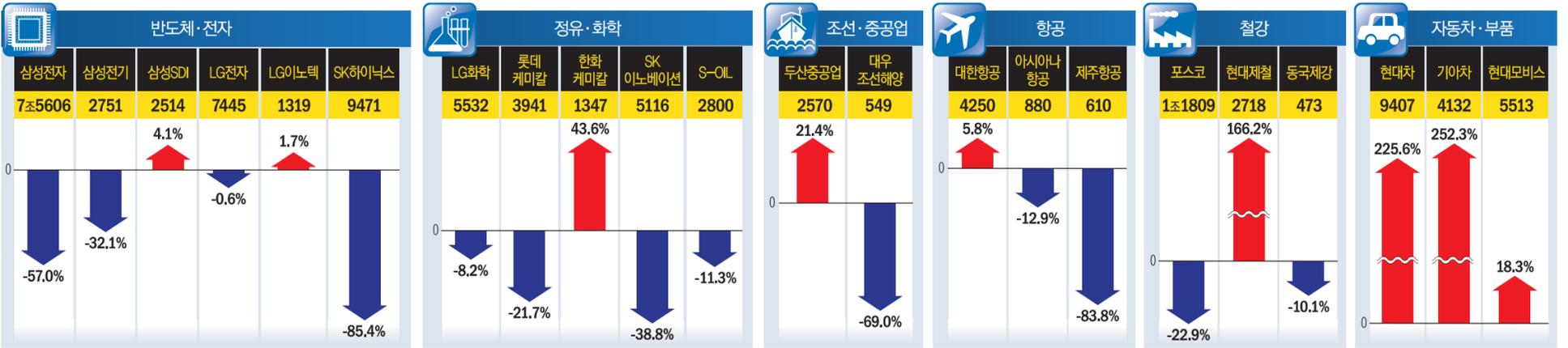
어쨌든  
 인생의  
 모험이니까

당신의 모험이 즐겁고 안전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가 자신감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올해 3분기 영업의 전망 (단위: 억 원)



## 3분기도 파랗게 질려...후만 성장 페달

### 산업계 실적 전망

국내 산업계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줄줄이 부진한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마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여건도 좋지 않아서다. 기업들의 숨통은 끊임없이 조여지고 있으며, 회복 시점도 불투명하다.

반면,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자동차 업계는 나홀로 호조세를 보이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한동안 부진했던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인기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암울하다.

각각 7조5606억 원, 9471억 원이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7%, 85%씩 감소한 수치다. D램과 낸드에서 평균 판매가격(ASP)이 크게 떨어졌고,

### 반도체 '보릿고개'

삼성전자 2분기 컨센서스 -57%  
"저점 찍고 4분기부터 회복 기대"

### 정유·화학 수요 저조

무역갈등 심화...중 부양책 불투명  
美 세일가스 증산 영향 공급과잉

### 車 미국 판매 회복

대형 SUV 출시...수출 '버팀목'  
中 판매 부진 당분간 지속 전망

재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먹구름 가득한 반도체 업황 회복은 당분간 가능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맡긴 서버 칩 신제품 출시 효과와 PC CPU 공급 부족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3분기를 저점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이 4

분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나, 대폭적 실적 개선은 내년 2분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가 보릿고개인 셈"이라고 말했다.

전자 및 부품회사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 삼성전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릴 전망이다.

정유·화학업계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마중 무역갈등 심화, 중국 경기 부양책 불투명 등으로 적극적 수요 확대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세일가스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에스오일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 39%, 22%, 12%씩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선업계는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의 체감도는 낮다. 한국조선해양은 11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전환, 삼성중공업은 128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9.0% 감소한 54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부진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 조선업계가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올 하반기 업계 농사를 좌우할 LNG운반선 수주전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철강업계도 포스코, 동국제강이 각각 23%, 10% 감소한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 발레(Vale) 광산탐 붕괴사고로 인한 철광석 공급 감소와 호주에서 발생한 태풍 영향 등으로 최근 철광석 원료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철강 가격 인상에 한계가 있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다만 2분기까지만 해도 30% 가까이 감소폭을 보인 현대제철은 3분기 들어 무려 166.2% 늘어난 2718억 원을 기록하며 상당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업계는 실적이 다소 개선된 대한항공을 제외한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이

각각 13%, 84% 감소한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동차는 그야말로 '나홀로 질주'하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9407억 원, 4132억 원으로 무려 226%와 252% 급증이 예상된다.

지난해 역성장했던 미국 시장 판매량과 이익률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SUV 신모델 출시로 추가적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정부의 자동차 수요억제 정책으로 중국 판매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수출 시장에서도 나홀로 전진, 국내 전체 수출 하락을 저지하며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완성차 수출액은 179억 5634만 달러(약 20조8900억 원)로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반도체(-21.9%), 석유제품(-5.0%), 선박해양(-4.0) 등 국내 주요 분야는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권태성 기자 tskwon@  
변효선 기자 hsbun@

## 태양광·배터리... '미래 먹거리' 왜 美 몰리나

### 한화큐셀·SK이노 공장 마련 현지 매출 커 세금 감면 매력 트럼프 '당근과 채찍' 효과

에너지·화학·전자 등 분야를 막론하고 굵직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의 육성 거점으로 미국을 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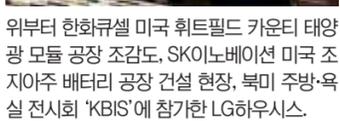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 SK이노베이션, LG하우시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각각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엔지니어드 스톤의 생산공장을 미국 현지에 마련했다.

글로벌 태양광 선도기업 한화큐셀은 올해 2월 미국 조지아주 휘트필드카운티에 위치한 태양광 모듈 공장의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이 공장은 현지 최대 규모인 1.6GW급으로 지어졌다. 이는 약 250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전기량이다.

SK이노베이션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중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생산 거점으로 미국을 택했다.

미국 조지아주 잭슨커머시에 112만㎡(약 34만 평)의 부지를 확보한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월부터 부지 정비 등 기초 공사에 돌입했으며, 3월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 공장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첫 공장이다. 2021년 하



위부터 한화큐셀 미국 휘트필드 카운티 태양광 모듈 공장 조감도,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북미 주방·욕실 전시회 'KBIS'에 참가한 LG하우시스.

리석 공장의 엔지니어드 스톤(프리미엄 인조대리석) 3호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있다. 신규 라인의 생산 규모는 연산 35만㎡이며,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다.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 사업의 생산 공장을 미국에서 짓는 이유로 △거대한 소비 시장 △우수한 인재풀 △트럼프 정부의 투자 유인 정책 등이 꼽힌다.

특히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당근과 채찍'을 통한 투자 유인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한다. 홍성일 환경연계정책팀장은 "최근 미국 정부는 한 손에는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장벽을 치면서 '채찍'을, 다른 한 손에는 법인세를 낮추고 주 정부 차원에서 공장의 부지 제공을 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하면서 '당근'을 들고 자국으로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 입장에서 30대 기업 매출 대부분이 해외 매출인 데다가, 미국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한 '셰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정책을 맞닥뜨렸던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서 주정부 등으로부터 부지 무상 제공, 재산세 감면 및 법인세 혜택 등 총 3000만 달러(약 330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 현대차 미국 품질지수 순위



## 美 품질평가 석권한 현대차 중고차 불만 오히려 늘었다

### JD파워 중고 순위 6→7→9위 "신차 내구성 좋아져 개선 기대"

현대차그룹이 미국 JD파워(J.D. Power) 신차품질조사에서 1~3위를 석권했다. 반면 출고된 지 3년 된 차의 품질 평가지수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내구성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현대차그룹과 JD파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 신차품질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제네시스가 수위를 석권했다. 2017년부터 별도 브랜드로 신차품질조사를 받기 시작한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독일 포르쉐와 일본 렉서스 등을 제치고 첫해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기아차와 현대차도 일반 브랜드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차품질평가지수(IQS)는 차를 구입한 지 90일이 지난 고객을 대상으로 불만 건수를 집계한 수치다. 초기 IQS는 향후 다른 고객의 신차 구입 때 적잖은 지표로 활

용된다. 현대기아차가 이 순위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현대차의 IQS 순위는 2017년 8위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이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3위를 기록했다. 기아차도 2015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내구성을 바탕으로 한 중고차 품질지수와 고객만족도는 꾸준히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고 3년 된 차의 품질지수 평가인 VDS(Vehicle Dependability Study) 지수가 26위(2015년)였던 현대차는 2017년 6위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7위, 올해는 9위까지 내려앉았다. 신차품질평가에서 현대차를 앞질렀던 기아차 역시 지난해 5위까지 상승한 것을 정점으로 올해 10위로 떨어졌다.

차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현대기아차의 내구성이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VDS지수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유창욱 기자 woogie@

# 삼성폰 '인도 탈환' 프로젝트 착착

**인도 스마트폰 신공장 설립 1년  
샤오미 꺾고 프리미엄 1위 성과  
전체 점유율은 23%로 아직 2위  
배터리팩·디스플레이 생산 검토**

삼성전자가 인도 스마트폰 공장을 설립한 지 1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4분기 만에 1위 자리를 차지한 게 대표적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샤오미에 빼앗긴 선두자리를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9일 인도 노이다에 스마트폰 신공장을 설립한 지 1년을 맞는다. 지난해 7월부터 가동한 공장에 삼성전자는 약 8000억 원을 투자했다. 증설을 통해 현재에 생산되는 스마트폰 생산량은 5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늘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 대규모 스마트폰 공장을 세운 것은 중국 단말기 제조업체들에 대응하려는 조치였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이지만 인도에서만은 샤오미, 원플러스로 대표되는 중국업체와의 경쟁에 고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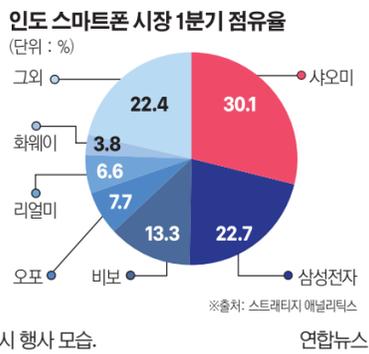
인도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세에 올랐다는 점 또한 삼성전자가 투자를 서슴지 않았던 이유다.

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반면, 인도는 같은 기간 4% 성장세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과감한 투자는 이른 시기에 빛을 발했다. 올해 1분기 인도 온라인 스



3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삼성전자 갤럭시 S10 출시 행사 모습.



마트폰 시장에서는 점유율 15%로 2위를 기록했다. 순위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변동이 없었지만 점유율은 1%포인트 상승했다. 판매량은 갤럭시 M10, M20의 흥행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1위는 중국의 샤오미(43%)가 차지했지만, 지난해 1분기(57%)와 비교했을 때 점유율은 14%포인트 감소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성과는 더욱더 눈부시다.

삼성전자는 1분기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44%를 기록하며 4분기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한동안 선두를 유지했던 중국의 원플러스는 2위(26%)로 떨어졌다.

삼성은 기세를 이어나가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를 꺾고 1위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샤오미는 2017년 4분기 이후 현재까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샤오미(30%)는 삼성전자(23%)를 제치고 선두를 수성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인도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 인근에 각각 스마트폰 배터리팩 조립라인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건설을 검토 중이다. 투자가 이뤄진다면 삼성전자의 현지 스마트폰 생산능력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차별화된 성능을 지닌 삼성 스마트폰도 인도에 우선 공개한다. 고동진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부장(사장)은 3월 열린 갤럭시S10 인도 출시행사에서 "온라인 전용 모델 갤럭시 M 등을 인도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며, 더 많은 소비자에게 최상의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한화, 인도 협동로봇 시장 공략

**인도 4대기업 '위프로'와 업무협약  
연구부터 시장 진입까지 '맞손'**

한화가 인도의 4대 기업인 '위프로'와 손잡고 현지 협동로봇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전 세계 기업들의 제조기지 거점화되며 공정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30일 위프로와 외신 등에 따르면 한화정밀기계와 위프로 그룹의 산업 자동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위프로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링(WIN)과 인도 내 협동로봇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공동으로 연구개발(R&D)부터 시장 진입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협동로봇은 작업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는 로봇이다.

주로 금속 가공 및 플라스틱 사출 기계로 인해 신체 기밀 사고나 화상 위험이 있는 공정 혹은 나사 조립과 같은 반복적인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활용된다. 산업용 로봇에 비해 초기투자비가 저렴하고 부피

가 작아 사용 편의성도 높다.

미국 벤처캐피털 리서치 기업인 루프 벤처스에 따르면 세계 협동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해 13억8000만 달러(1조5725억 원)에서 2025년엔 92억1000만 달러(10조4947억 원)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정밀기계는 이번 위프로와의 협력을 결정한 데는 인도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산업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2014년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기업이 현지 기업과 협력하도록 강제해 생산 현지화를 유도하면서 전자,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인도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한화정밀기계는 위프로 손잡으면서 인도 협동로봇 시장에 좀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총액만 116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 4위 기업이자 글로벌 3위 IT 아웃소싱 회사인 위프로는 지난해 WIN을 통해 자동화 사업을 시작했으며, 인도와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잡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전기레인지 판매 을 100만대 찍나

**미세먼지 배출 적고 간편  
상반기 판매량 50% 증가  
제작년 60만, 작년 80만대**

전기레인지가 가전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가스레인지와 달리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관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올해 상반기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었다.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도 전기레인지에 주목하기 시작해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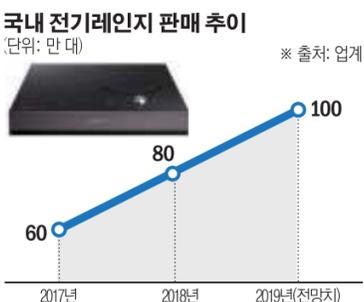
30일 하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5일) 전기레인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매출액 또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증가했다.

지금까지 전기레인지는 가전 시장에서 비주류였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선 절반 이상의 가정이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전기레인지 보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전기레인지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데는 미세먼지 확산이 존재한다. 가스레인지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지만, 전기레인지는 그렇지 않다. 전기레인지는 가스 밸브를 잠갔는지 점검할 필요가 없고, 안전사고 위험도 낮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전기레인지는 조리 중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양이 적을 뿐 아니라 청소도 간편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가전 업체 산맥인 삼성전자, LG전자가 시장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도 전기레인지 판매량 증가에 한몫했다. 이전 전기레



인지 시장은 동양매직(현 SK매직)과 쿠첸 등 중견 가전업체들이 주도했다.

이에 맞서 LG전자는 작년 독일 특수유리 전문업체 쇼트사의 '미라듀어 클래스'를 갖춘 전기레인지를 선보였다. 특수유리인 미라듀어는 다이아몬드에 견줄 만큼 긁힘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도 올해 초 세프컬렉션 인덕션을 공개했다.

세프컬렉션 인덕션은 6800W(와트)의 화력을 구현했다. 한꺼번에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1개 화구를 최대 4개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 플렉스존'도 도입했다.

전기레인지 시장 규모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0만 대에 불과했던 전기레인지 시장은 올해 100만 대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브랜드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들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전기레인지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기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 시베리안 차기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 “밀레니얼 세대 잡아라”... 주방용품 업계 ‘마케팅 열전’

락앤락, 환경의 달 ‘투고 텀블러’ 캠페인... 젊은층에 큰 호응  
삼광글라스 ‘글라스락 공식 물’ 열고 온라인 강화 판매 전략  
써모스, 익선동에 팝업스토어... 유튜브·인스타 채널 개설도

주방용품 업계가 젊어지고 있다.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편으로 밀레니얼 세대(1982~2000년에 태어난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수 부진과 시장 포화 등으로 새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진 주방용품 업계가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하고 있다. 주방용품의 소비자로 주부 외의 고객군을 공략하고 나선 것이다. 동시에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가속화하면서 소비 시장을 이끄는 집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

락앤락은 최근 ‘락앤락 투고 텀블러 캠페인’으로 젊은 층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투고 텀블러 캠페인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마련된 행사로 트럭 형태의 무빙 카페가 도심을 다니며 텀블러와 커피를

제공한다. 시민들은 기부금 1000원을 내고 한정 수량의 민트 컬러 텀블러와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지난달 5일부터 강남역,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대입구역 커먼라운드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락앤락 관계자는 “투고 텀블러 캠페인은 20대의 참여가 7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에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매번 세 시간여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20대의 발길을 끈 흥행 포인트는 바로 이색 경험과 희소성”이라고 진단했다. SNS 상에는 1200여 건의 관련 게시물이 게재되기도 했다.

락앤락은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까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영상 콘텐츠를 활발하게 공유하는 20대



지난달 22일 건대입구역 커먼라운드에서 열린 락앤락 ‘투고 텀블러 캠페인’. 사진제공 락앤락

를 겨냥해 ‘제품을 읽다’와 ‘꿀바른 생활 팁’이란 두가지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올해 3월 본사 직영의 첫 온라인 공식 물인 ‘글라스락 공식 물’을 열었다. 500여 개의 글라스락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글라스락 공식 물은 삼광글라

스의 올해 전략인 ‘온라인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지난해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방용품 업계 실적이 다들 좋지 못했는데 온라인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며 “특히 영유아용 제품군이나 간편육 용기는 온라인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20% 증가해 온라인 쪽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보온병 브랜드 써모스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팝업 스토어를 열어 마케팅 효과를 누렸다. 써모스코리아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JDE 콜드컵 팝업스토어’를 열었고, 3800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써모스코리아는 단순히 보냉 기능이 강한 콜드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컬러리스트가 진단해주는 퍼스널 컬러 진단, 셀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컬러링 스튜디오, 컬러 슬라이드 만들기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 구성했다. 써모스코리아는 올해 가을에도 서울에서 팝업 스토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써모스코리아는 5월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도 개설했다. 써모스코리아 관계자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소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새롭게 써모스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을 오픈하게 됐다”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와 소통하는 브랜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99·88’. 대한민국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 중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하지만 창업 이후 5년 생존율이 2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생존환경은 열악하다. 또 ‘사업실패=폐기장산’이라는 수식처럼 재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또 이들의 노하우, 특히 기술적 노하우가 사장되는 등 경제손실 규모가 매년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사회적 손실도 막심하다. 실패기업인들의 재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지난 8년간 국내 최초이자 민간 최초로 재도전 전문기관인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을 운영해 온 한상하 오뎅이창업 대표이사가 1000명이 넘는 실패 중소기업인들을 교육하고 컨설팅한 경험을 살려 재기 기업인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재도전의 해법을 제시한다.

## ‘재도전 힐링캠프’서 실패 원인 철저히 분석 100만원으로 재창업...자본금 1500배 늘려

### 오뎅이 기업인 300인을 찾아서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운영  
재창업 교육프로그램 참가  
정부 지원으로 부채 해결  
초소형 불꽃감지기 첫 개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



며 “수백 곳에 입사지원서를 냈지만 면접 보러 오라는 곳도 없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부터 대리운전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잠시 몸담았던 불꽃감지기 개발·판매 중소기업은 정년에 걸려 2년 만에 그만뒀다. 유 대표가 희망의 끈을 잡게 된 것은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 운영하는 재창업 교육프로그램인 ‘재도전 힐링캠프’였다. 신문광고를 보고 개발원을 찾은 유 대표는 과정 내내 성실히 교육에 임했고 냉철하게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

다. 그가 내린 결론은 “실패의 이유는 바로 스스로에게 있었다”였다. 그는 불꽃감지기 회사에서 봤던 제품의 단점과 보완점에 착안해 재창업을 결심했다. 크고 무거운 불꽃감지기의 오작동을 줄이면서 무게는 가볍게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재창업의 발목을 잡던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와 체납세금은 정부 재도전 정책 지원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유 대표는 전 재산이었던 100만 원으로 2013년 아이알티코리아를 세웠다. 유 대표는 “기술개발자의 변심, 제조파트너와의 계약 무효 등 위기가 많았다”며 “6년간 하루하루를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노력의 결과 세계 최초 초소형 디지털 불꽃감지기 개발에 성공했고 기존 가격보다 50%나 싼 초소형 상품을 출시하는데 성공했다. 올해 기준 아이알티코리아는 국내 특허 10건, 해외 특허 출원 6건, 형식 승인 6건, 중국, 태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벨기에 등에 11개의 해외지사도 두고 있다. 현재 자본금은 창업 시 자본금의 1500배인 15억 원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16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성공했고 올해는 3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유 대표는 “작지만 알찬 회사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실패 기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상하 오뎅이창업 대표이사  
정리=임기훈 기자 shagger1207@



SK브로드밴드 모델들이 ‘살아있는 동화 2.0’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SK브로드밴드

## “우리 가족 모두, TV동화 주인공”

SK브로드밴드, B tv ‘살아있는 동화 2.0’ 서비스 출시  
등장인물에 얼굴 넣어 역할놀이, 1명→3명 확대 적용

SK브로드밴드는 아이들의 얼굴이 단순히 TV에 나오는 것을 넘어 직접 TV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감정 변화에 따라 표정이 자동으로 변하는 B tv ‘살아있는 동화 2.0’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작년 8월 첫 출시된 버전이 한 명의 얼굴만 나오는 한계가 있어 아빠, 엄마까지 총 세 명의 얼굴이 동화 속 인물들로 변하고 나아가 이들의 다양한 표정을 스티커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또 다양한 얼굴 표정을 바탕으로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 메신저용 이모티콘도 제작할 수 있다.

B tv ‘살아있는 동화’는 3~7세 아이의 얼굴, 목소리, 그림을 담아 나만의 TV동화를 만드는 북 서비스다. 유아친화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UI로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 iF디자인어워드 2019’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살아있는 동화 2.0’은 △가족 역할놀이 △스티커 동화책 △이모티콘 대화 기능 등 부모와 함께 아이가 재미있는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신규 기능들을 대폭 강화했다. 이 중 ‘가족 역할놀이’는 아빠, 엄마, 아이의 얼굴을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어 TV로 보내면 이들의 얼굴로

TV동화 속 캐릭터가 바뀌는 서비스다. 또한 동화 속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얼굴 표정이 변해 부모와 함께 마치 역할놀이를 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스티커 동화책’은 TV동화 속에서 구현되는 12가지 표정을 휴대폰 사진첩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장한 얼굴을 스티커로 출력해 실제 동화책에 붙일 수 있다.

‘이모티콘 대화’는 아이의 생생한 표정을 움직임이 가능한 GIF 파일로 저장해 이모티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모바일메신저, SNS 등에 아이의 표정을 이모티콘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최신 AR·VR 기술인 T리얼을 적용했다. △다중 객체 추적 기술 △실시간 표정 자동 생성 기술 △콘텐츠 자동 생성 기술 등을 적용해 다양한 신규 기능을 추가했다.

SK텔레콤은 ‘살아있는 동화’ 관련 핵심 기술 11건을 포함해 AR·VR 관련 60여 개의 핵심 기술들을 특허 출원했다. B tv ‘살아있는 동화’는 오는 10월 말까지 서울 중구 서울에니메이션센터에서 체험존이 운영된다. B tv 고객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김범근 기자 nova@

# “불공정 관행 잡을 기회 날려”... 자영업자 ‘상처뿐인 승리’

##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앞두고 무기한 연기

### 제조사·도소매상 간 분열 양상에 돌연 행정고시 유예 소비자는 도입 긍정적... 의견 수렴 후 시기 조율했어야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주류업계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일부터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시행을 며칠 남기지 않은 6월 말 돌연 ‘행정고시 유예’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개정안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것이다.

주류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발표되자 업계는 제조사와 도매상, 소매점, 외식업체 등 각각의 이권을 두고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당장 소매점과 유통음식점, 프랜차이즈업체는 리베이트 쌍벌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제조사와 도매상, 주류산업협회 등은 환영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3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의 무기한 연기로 ‘자영업자의 상처뿐인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제조사와 도매상,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매상 간 갈등으로 번지자 행정고시 유예가 마치 업계 간 갈등의 승패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업계에서 ‘상처뿐인 승리’로 평가하는 배경은 기울어진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 소비자를 비롯한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제약사와 의료계 간 리베이트 쌍벌제가 일찍부터 도입되면서 기존 리베이트에 따른 부작용을 산업 전반에서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실제로 제약사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일부 약가 인하로 이어지며 소비자 혜택이 커지기도 했다.

주류 리베이트는 소매상과 도매상에게 제조사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구매량이 적은 도소매상은 혜택에서 오히려 차별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프랜차이즈 역시 판매장려금을 ‘주류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창업자

들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해오기도 했다.

리베이트가 만연하면서 현금뿐만 아니라 변질된 거래도 빈번해졌다. 6개 들이 한 상자인 위스키를 주문량이 많은 업소에 7팩, 8팩이란 이름으로 1~2병 추가해 공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맥주나 소주는 2박스 주문 시 1박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제조상의 수익 악화로 이어졌다. 1인당 주류 소비량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도한 리베이트로 적자에 허덕이는 주류 회사가 늘어났다. 지방소주 기업과 위스키 업체의 대부분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점유율이 낮아질까 리베이트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도매상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부작용 중 하나다. 거래량이 대형 도매상들은 혜택이 늘어나면서 영업권역을 넓혀 나갈 수 있었지만 중소규모 도매상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리베이트로 기존 영업지역을 수성하기도 버거웠다.

자를 1만 원에 공급받는다면 중소형 도매상은 1만2000원에 공급받는 꼴이다. 과거처럼 영업권역이 보호되지 않으면서 중소형 도매상 가운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었다”며 도매상들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찬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무기한 연기를 이끌어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대해온 이들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주류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여부와 도입 시기를 조율했어야 한다”며 “국세청이 1일 시행을 밝힌 후 상당수 소비자가 불공정한 관행으로 리베이트를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방식이 리베이트 관행을 만들어낸 만큼 주류 도매 면허를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기업형 외식업체가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주류도매업자는 “대형 도매상이 1상

유현희 기자 yhh1209@

# 롯데하이마트 ‘한국판 츠타야’ 만든다더니...

유플 전략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강조해온 롯데가 롯데하이마트의 유플스토어 1호점 구리역점의 북카페 ‘까페폼마’를 오픈 1년여 만에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 유플스토어 1호점에 흡인숍으로 입점한 ‘까페폼마’가 2월 말 영업종료했다. ‘한국판 츠타야’를 표방하며 고객 경험 혁신을 제공하겠다는 롯데의 유플 전략의 일환으로 탄생한 점포는 결국 1호점이 폐점하며 자취를 감추게 됐다.

카페폼마는 도서와 유통의 결합 모델로 온라인에 맞설 오프라인 유통의 혁신 전략으로 평가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출판사 문학동네와 협업해 지난해 1월 카페폼마를 오픈한 바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곳’이란 콘셉트를 내건 일본의 츠타야와 유사한 형태다.

신동민 회장도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유플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며 ‘유플채널’을 롯데 유통 부문의 미래 전략으로 수차례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카페폼마의 영업종료는 이례적이다.

가전 유통업계 최초의 온·오프라인 결합형 매장인 카페폼마는 고객들이 책을

## 구리역점에 도서·유통 결합 ‘까페폼마’ 음료만 팔리자 1년 만에 슬그머니 폐점



롯데하이마트 유플스토어 구리역점에 입점했던 북카페 ‘까페폼마’가 오픈 1년 1개월 만인 2월 말 영업 종료했다. 온라인에 입지를 뚫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 입장에서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오픈했지만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

보다가 매장에 진열된 가전제품 쇼핑도 하고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다 ‘유플존’에서 태블릿PC를 통해 매장에 없는 제품을 주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2층 라이프스타일 매장도 책과 가전이 함께 진열된 복합 서가로 구성됐다. 믹서기, 토스트기 등 주방가전 옆에 요리책을 꽂아놓거나 다리미, 청소기 등 생활가전과 함께 실내 인테리어 서적, 수납 아이디어 서적 등을 배치하는 식이다.

북카페 운영 주체인 문학동네 측은 롯데하이마트 구리점 방문객들이 서적보다 커피 등 음료를 구매하는 비율이 더

높아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구리점에 카페폼마가 있던 공간은 소량의 도서가 남아 있긴 하지만 대폭 축소했고, 전면에 5칸짜리 도서 서가로 전면 배치돼 있던 공간은 흡카페 머신, 전기밥솥 상품 코너로 채워졌다”며 “문학동네 측에서 영업종료 의사를 알려왔다”고 배경을 전했다.

롯데의 유플채널이 주춤한 사이 신세계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별마당도서관은 도서와 결합한 유통의 혁신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신세계 측

은 비영리 목적의 ‘열린 도서관’ 콘셉트로 별마당 도서관을 운영해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 명사 초청 강연을 통해 집객 효과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3년간 판매관리비가 매년 200억~300억 원씩 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5%로 전년(5.1%)보다 하락했다. 온라인으로 고객이 이탈하며 수익성이 낮아지는 롯데하이마트가 온·오프라인 전략 수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첫 유플채널 모델의 실패가 뼈아픈 이유다.

글·사진/이꽃들 기자 flowerslee@



## ‘대물 민어’로 무더위 몸보신하세요

현대백화점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압구정 본점 등 경인 지역 10개 점포에서 직송한 ‘대물 민어’를 당일 판매가의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물 민어’는 무게가 9kg으로, 보통 민어에 비해 최대 9배 정도 크다. 초여름에 살과 기름이 많이 올라 가장 맛이 좋으며,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여름철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었을 만큼 지친 기력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귀한 보양식이다.

현대백화점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압구정 본점 등 경인 지역 10개 점포에서 직송한 ‘대물 민어’를 당일 판매가의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물 민어’는 무게가 9kg으로, 보통 민어에 비해 최대 9배 정도 크다. 초여름에 살과 기름이 많이 올라 가장 맛이 좋으며,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여름철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었을 만큼 지친 기력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귀한 보양식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 이마트24, 복날 타깃 ‘여름이 왔답’ 이벤트

## 상품 9종 증정·할인 이색 행사

이마트24가 복날을 맞아 닭 관련 상품 이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마트24는 7월 한 달간 닭가슴살, 구운 계란, 불닭 등 닭과 관련한 상품 9종에 대해 1+1, 2+1 등 증정 행사와 함께 SSG페이 결제 시 1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름이 왔답’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24가 복날을 앞두고 유통업체가 주로 진행하는 삼계탕 마케팅이 아닌 이색 닭 상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판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 7월에 닭가슴살, 계란 등을 찾는 고객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마트24가 지난해 월별 닭가슴살, 계란 관련 상품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월이 11.4%의 매출 비중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자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마트24는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보양식 마케팅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

고객들은 7월 한 달간 1+1, 2+1에 KT 멤버십, SSG페이 각 10% 할인까지 더하면 최대 60% 할인 효과를 누리며 다양한 닭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복날 등으로 치



킨을 많이 찾는 7월을 맞아 치맥(치킨+맥주)과 치콜(치킨+콜라)을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4캔으로 부족하담!’, ‘닭치고 코카콜라’ 이벤트도 진행된다. ‘4캔으로 부족하담’은 매주 목요일 이마트24에서 수입브랜드 행사 맥주 8캔을 1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다.

고객들은 다음 달 4일(목, 페이코), 11·18일(목, NH농협카드), 25·26일(목, 금비씨카드)에 해당 카드로 수입 브랜드 행사 맥주 8캔 결제 시 5000원이 청구 할인된 1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24 마케팅 담당 안혜선 상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뻔한 삼계탕 할인 마케팅이 아닌 실속 있고 재미있는 이색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복날 연상되는 닭이라는 이미지를 재해석한 위트있는 이벤트로 20~30대 메인 고객에게 이마트24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장마철 필수템’ 준비하셨나요?

## K2 레인코트·금강제화 방수신발 등 출시 줄이어

유통업체가 장마 대비에 나섰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장마철을 앞두고 방수 기능을 갖춘 남녀 공용 레인코트를 출시했다. K2 레인코트는 사파리형 스타일의 레인코트와 망토 스타일의 판초 우의 2종으로 출시됐는데 사파리형 스타일의 레인코트는 소매를 탈부착할 수 있어 날씨에 따라 긴소매, 반소매로 선택해 입을 수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에르노(HERNO)는 장마철 레인코트로 활용하기 좋은 남녀 방수 재킷을 출시했다. 에르노는 레인코트

로 시작한 브랜드인 만큼 브랜드 대표 기능성 라인인 ‘라미나르’ 컬렉션은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어사와 협업해 내구성과 기술력을 높였다.

장마철 방수 기능이 탁월한 신발의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금강제화가 출시한 MAX2320F031은 방수·방풍·투습의 고어텍스 소재가 적용돼 장맛비를 차단해주고 신발 내부의 습기를 빠르게 배출해준다. 블랙야크는 360도 전방향 투습 기능과 방수 기능이 특징인 드라켄 실드를 출시했다. 아이더의 경우 장마철 외부 습기를 막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장마철 대비 ‘레인코트’ 2종을 선보였다. 사진제공 K2

고 신발 안에 생기는 땀을 배출하는 모션로우 제품을 선보였다.

이베코리아의 G9(지구)는 ‘장마 필수템’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레인부츠 등 장마 패션 아이템부터 습기 퇴치용품까지 구매 목적별로 분류해 할인가에 선보인다. 박미선 기자 only@

# ‘불법 OEM펀드’ 판매 금융사들 무더기 징계

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한화투증·DB금융투엔 과태료 처분... NH농협 징계 여부 촉각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OEM펀드’ 논란을 일으켰던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에 징계를 내렸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016~2018년 OEM펀드를 만들고 판매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일부 영업정지’를, 해당 펀드 운용을 도운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OEM펀드란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펀드가 설정되고 운용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펀드 설정 방식이 일반 제조업에서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외부 업체가 제품을 만드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온 표현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OEM펀드는 불법이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당국으

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인데, 판매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가 만들어진다면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펀드를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펀드 판매사였던 NH농협은행이 ‘완제품’ 수준으로 펀드의 투자 대상이나 구조 등을 짜와서 자산운용사에 특정 펀드를 만들게 하고 운용 방법을 주기적으로 지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운용사가 시리즈 형태로 만든 OEM펀드는 총 7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가 해당 펀드의 운용을 도운 것으로 봤다. 해당 펀드가 투자한 채권은 펀드 만기가 잇달리는 이른바 ‘미스매칭펀드’가 됐고, 운용사들은 투자자 환매 요구를 ‘돌려막기 식’으로 대응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해당 채권을 사고 팔아주며 펀드 운용을 도왔다는 혐의다. 다

만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이번 사건을 방조하기는 했으나 주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징계 처분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업계의 시선은 NH농협은행의 징계에 쏠리게 됐다. 이날 제재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NH농협은행은 해당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시 정황이 담긴 문자와 녹취 SNS 내용 등의 증거가 제재심에서 제시됐다”면서 “특수은행검사국과 자산운용검사국이 의견을 조율해 NH농협은행은 제재안을 결정하고 제재심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의 혐의가 제재심 안전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OEM펀드가 미스매칭펀드인 점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고, 공모인데 형식상 사모(투자자 50인 이하)펀드로 쪼개 팔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NH농협은행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한신기계 ‘적대적 M&A’ 노렸던 스틸링, 지분 매각 왜?

지분 보유목적 ‘단순 투자’ 변경  
경기위축에 2년 동안 실적 부진  
“인수가치 낮아졌다” 판단한 듯

한신기계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던 외국계 투자회사 스틸링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엘엘씨(이하 스틸링)가 최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변경한 데 이어 지분 매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티링은 조세피난처인 케이맨제도에 있는 미국계 투자회사로 2015년 말 한신기계 주식(지분율 5.25%) 보유 사실을 처음으로 공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왔다. 2017년 2월 스틸링은 한신기계의 지분 14.44% 보유 사실을 공시하면서,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변경했다.

이후에도 지분을 꾸준히 사모은 스틸링은 같은해 10월 지분을 17.18%까지 늘리며, 최대주주인 최영민 대표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보유지분(20.94%)을 바짝 쫓았다.

당시 IB(투자은행) 업계 일각에서는 스틸링이 한신기계의 경영 참가를 선언한 것



을 두고 적대적 M&A를 선포한 것으로 해석했다. 스틸링은 2014년 대창단조의 지분 1%를 사들인 뒤 주주 제안에 동참하는 등 행동주의 펀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반 동안 추가로 지분을 늘리지 않던 스틸링은 5월 말 돌연 한신기계의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 이어 이달 26일에는 보유 지분 3.06%(99만1372주)를 장내 매도했다. 스틸링이 한신기계 주식을 매도한 것은 처음이다.

스티링이 한신기계의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한 데 이어 지분 매도까지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적이 꺾이면서 인수가치가 낮아져 지분을 매각하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신기계는 1969년 설립된 공기압축기 시장 국내 1위 업체다. 설비 기계 업종인 이 회사는 경기 영향을 크게 받아 경기 위축 탓에 실적이 2년 동안 부진했다. 2016년 627억 원이던 매출액은 지난해 533억 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 역시 2016년 87억 원이었으나 매년 줄어 2018년에는 48억 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실적 반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주기도 실적과 함께 하락했다. 스틸링이 5.2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2015년 12월 29일 기준 주가는 2385원이었고,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로 변경할 당시인 2017년 2월 8일 기준 주가는 3045원이었다. 2017년 5월 4600원대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이달 28일 기준 현재 19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스티링의 입장과 관련해 업무 담당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와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신기계공업 측은 “주식 보유 관련해서는 회사는 보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상호변경 이후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상호명 변경	이유	거래정지
피엠티파마사이언스 → 더블유아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변경	거래정지
스포츠서울 → 한류타임즈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변경	거래정지
화텍파워 → 파인넥스	회사의 경영목적 및 전략에 따라 적합한 상호명으로 변경	거래정지
마제스타 → 제이테크놀로지	신규사업과 관련한 회사 이미지 제고	거래정지
KD건설 → KD	시행사업 강화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거래정지

## 내부 악재 숨기고 이미지 세탁 ‘사명 변경’ 상장사 투자주의보

올 들어 사명을 변경한 코스닥 상장사가 가운데 절반 정도가 거래 정지, 주가 급락 등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명 변경이 내부 악재를 숨기기 위해 새 회사로 탈바꿈하는 ‘꼼수’로 이용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0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중 총 41개사가 사명을 변경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55개 코스닥 상장사가 사명을 바꾼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로 해석된다.

사명 변경의 주된 이유는 기업 이미지 쇄신 및 브랜드 가치 제고였다. 41개 사 중 43%(18개)가 사명 변경의 이유로 기업 이미지 쇄신을 꼽았다. 이어 경영 목적 및 전략에 따른 변경

림어스컴퍼니(전 아이리버), 디오스텍(전 텔루스), 위메이드(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KBI메탈(전 갑을메탈), 센트럴바이오(전 중앙리빙테크) 등도 사명을 바꾸고 난 후 주가가 급락한 사례로 꼽힌다.

사명을 바꾼 후 악재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사례도 빈번하다. 한류타임즈(전 스포츠서울)는 최근 사업 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받으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파인넥스(전 화텍파워), 제이테크놀로지(전 마제스타), KD건설(KD로 변경예정) 등 5개사도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WI(전 피엠티파마사이언스)는 2월 경영지배인의 횡령·배임 혐의 사유로 상장 적격

### 코스닥 상장사 올들어 41곳 사명 바꾸거나 진행 중 10곳 주가 떨어져... 한류타임즈 등 5곳 거래정지

22%(9개), 합병 및 분할이 17%(7개) 순이었다.

그러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명 세탁에도 4곳 중 1곳꼴로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명을 변경한 회사의 24%에 해당하는 10개사의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행문사는 스튜디오썸머로 사명을 변경했다. 1월 당시 주가는 최고 3350원까지 기록했지만, 현재 최저 1750원을 기록해 6개월간 47% 넘게 급락했다. 2016년부터 행남생각건강→행남자기→행남사→스튜디오썸머로 세 차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의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면서 지난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 밖에 피에스케이홀딩스(전 피에스케이), 코스맥스엔비티(전 뉴트리바이오텍), 헬릭스미스(전 바이로메드), 에스와이(전 에스와이패널), 드

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 재개됐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코스닥 상장사가 사명을 바꾸려는 이유를 살펴보고, 회사가 내부 악재를 가리려는 꼼수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은 “사명 변경은 기업 M&A에 따른 경우 아니면 기업 정체성을 쇄신하려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며 “후자의 경우 뚜렷한 계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적 어려움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 업체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영세하다 보니 이러한 시도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상호변경 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을 때 먼저 이유를 살펴보고, 왜 사명을 변경했는지 주의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희 기자 ljh@·노우리 기자 we1228@

## ‘개장 23주년’ 코스닥, 시총 31배 성장

거래대금 1800배 늘어

코스닥시장이 탄생 23주년을 맞았다. 모험자본 공급, 일자리 창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가 개장(1996년 7월 1일) 23주년을 맞아 코스닥시장이 이룬 성과를 발표했다. 시장규모 확대, 신규상장 증가 등 외형 성장을 바탕으로 기술주 중심 시장으로 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239조1000억

원으로 개설 당시(7조6000억 원)보다 31배 이상 성장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2000억 원으로 1800배, 상장기업 수는 1344개사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기술 특례상장이 코스닥 시장의 메인트랙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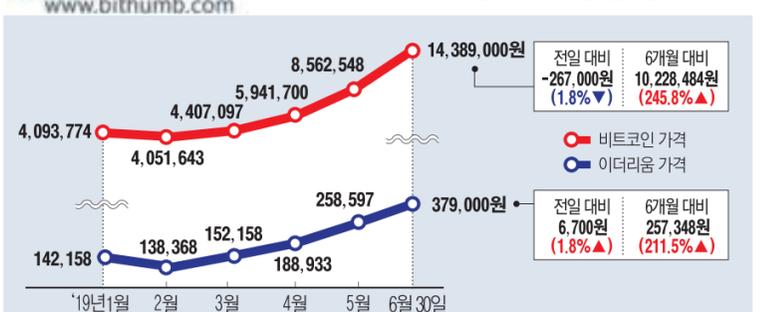
개설 초기에는 IT(정보통신)와 통신장비에 쏠려 있었지만 지금은 바이오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신규상

장 대비 상장폐지비율은 48.1%이다. 2009년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하면서 시장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8.1로 코스피 및 주요 해외 거래소 대비 경쟁우위를 보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의 임직원 수는 38만2182명으로 1997년 당시(3만9933명) 대비 9.6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취업자수에서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0.19%에서 2018년 1.42%로 1.23%포인트 늘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빗썸 지수 (2019년 6월 30일 18: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 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 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525,500	5,500 (1.1%▲)	모네로	119,400	-1,000 (0.8%▼)
리플	509	1 (0.2%▲)	비트코인골드	32,880	-470 (1.4%▼)
라이트코인	156,500	11,600 (8.0%▲)	이더리움 클래식	10,010	215 (2.2%▲)
대시	206,800	-700 (0.3%▼)	퀀텀	6,480	-200 (3.0%▼)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김포 대규모 개발사업 본격화...수도권 '블루칩' 부상

김포도시철도 이달 말 개통하고  
한강시네플리스 신규사업자 선정  
평화경제자유구역 추진도 앞뒤  
인구 큰 폭 늘어 부동산 시장 활기

	김포도시철도	한강시네플리스	평화경제자유구역
진행상황	총 23.67km, 3개 노선(5·9·공항철도) 환승, 2019년 7월 개통	사업자(협성건설 컨소시엄) 선정, 부지면적 112만㎡	현장조사 마친, 개발행위 제한 조치, 부지면적 515만㎡
상징성	서울 생활권 편입 교통 인프라 확충	10년 만에 사업 재개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김포 최초 경제자유구역
기대효과	서울 도심 및 강남 이동 획기적으로 개선	자급자족 도시 변모 첨단업종 유치	복합도시 개발, 직주근접 가능



김포시가 진행 중인 개발사업이 본격화에 오르면서 수도권 부동산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발사업의 가시화로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인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포시의 숙원사업으로 불리던 김포도시철도와 한강시네플리스 사업이 각각 완공과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최근 평화경제자유구역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길게는 10년 이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김포시 성장을 저

해하는 요소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에 오르면서 김포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7월 27일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는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김포한강차량기지(이하 김포차량기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김포공항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23.67km 노선이다. 김포시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서울의 관문이자 3개 노선(5호선, 9호선, 공항철도) 환승

이 가능한 김포공항역과 직접 연결된다. 이로 인해 김포에서 서울 도심과 강남 등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김포도시철도는 김포 내 출퇴근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강신도시를 비롯해 김포시에 위치한 대부분의 주거 단지를 관통하는 노선이라 출퇴근 시간마다 어려움을 겪던 극심한 차량 정체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조 원의 총 사업비 규모에도 10년 넘게 사업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던 한강시네플리스도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협성건설 컨소시엄은 10월까지 보상과 토지정리 작업을 완료한 뒤 내년 초부터 기반공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강시네플리스는 총 112만㎡ 규모의 부지에 영상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

으로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난달에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대곡면에 평화경제자유역을 추진하는 등 향후 예정돼 있는 굵직한 사업도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현재 대곡면 일대(오니산리, 거물대리)에 추진 중인 평화경제자유구역은 이미 현장실태 조사와 방문 조사를 실시했고 5월에는 일대에 개발행위를 제한한 상태다. 김포시는 이 일대를 복합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김포시는 교통인프라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해 인구 유입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수도권 대표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운서 역세권 첫 주상복합 '기대감 업'

수영장·학원 등 원스톱 라이프 가능...공간 효율성도 뛰어나

### 주목! 이곳

#### 반도건설 '운서역 반도유보라'



'운서역 반도유보라'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반도건설

공항철도 운서역 인근에 위치한 '운서역 반도유보라' 견본주택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방문객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특히 최근 분양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며 보이지 않던 이동식 중개업소 일명 '뺨다방' 들도 문을 치고 방문객들을 기다리는 의외의 모습을 연출했다.

인근에 위치한 영종하늘도시가 입주 물량이 쏟아지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장을 찾은 임모(32) 씨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마포권까지는 1시간 이내에 출근이 가능하다고 해 보러 왔다"면서 "단지 내 상가나 주거 부문의 설계도 만족스러워 청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서역세권 최초 주상복합인 '운서역 반도유보라'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9-4 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6층, 6개동, 전용면적 83~84㎡, 총 450가구 규모로 구성되며 단지 내 상업시설인 '키즈 & 라이프 복합몰-운서역 유토피아'는 지하 3층~지상 2층, 연면적 2만2075㎡ 규모로 조성된다.

상업시설의 경우 어린이 전용 수영장 '아이풀', 신개념 놀이문화 공간 '바운스', 명문 대학학원가가 입점 확정된 상태이며

린이 스포츠시설인 'PEC 스포츠 아카데미' 또한 입점을 타진하고 있어 자녀를 둔 가정들의 구미를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주상복합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낮은 공간 효율성을 찾아볼 수 없는 설계가 눈에 띄었다. 주상복합의 특징이던 기둥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대부분의 주택형에서 방 4개를 구현할 수 있다. 생활방식이나 구성원 수에 따라 방을 2~4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AIoT 등의 첨단 설계가 적용된다.

김지호 반도건설 분양소장은 "영종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인 만큼 평면 설계나 인공지능 AIoT 시스템 등 최상의 상품으로 입주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항철도 운서역세권과 반도건설의 우수한 상품성이 결합되는 만큼 '운서역 반도유보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

전세시장은 여름 비수기 진입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3주째 상승했다. 다만,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한 만큼 상승폭 확대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 분석이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랐다. 재건축아파트가 0.11%, 일반아파트가 0.02% 각각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하락해 약세를 이어갔고 경기·인천 매매가격은 포함(0.00%)을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전세는 0.00%로 보합을 나타냈다. 경기·인천은 0.02% 하락했고, 신도시는 0.03% 떨어진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 전세시장은 본격적인 여름 비수

기 진입으로 상승 전환의 동력이 약화된 분위기다. 차지구별로 보면 △은평(-0.12%) △송파(-0.09%) △마포(-0.07%) △금천(-0.04%) △구로(-0.03%) △성북(-0.01%) 순으로 하락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살아나지 않는 해외수주...관건은 중동

상반기 공사계약액 작년보다 30%↓...중동은 44% 급감

건설업계의 해외공사 계약실적이 작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연간 수주 기대치인 3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30일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집계된 해외공사 계약액은 119억2864만2000달러(약 13조7931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018년 1월 1일~6월 28일) 173억1780만6000달러보다 31.1% 감소

한 수치다. 공사건수는 작년 322건, 올해 318건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의 공사 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현재까지 중동에서 성사된 공사계약액은 36억3106만1000달러로, 작년(65억2281만9000달러)보다 44.3% 줄었다.

아시아는 작년 89억9168만3000달러에서 올해 57억6516만6000달러로 35.9% 감소했다. 중남미도 같은 기간 6억8990만

9000달러에서 1억9277만8000달러로, 아프리카는 5억3170만2000달러에서 3억4868만7000달러로 각각 72.1%, 34.4% 감소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작년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26억 달러 규모의 해외수주를 하는 등 큰 계약이 있었던 반면 올해는 그렇지 않다"며 "또한 연초에 했던 계약이 지연된 건,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 수의계약을 진행 중인 건 등이 있어 작년보다 계약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금주의 분양캘린더

7월 첫째 주 전국에서 1만141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성남판교대장지구제일풍경채',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황금센터' 등

이 분양에 돌입한다.

당첨자 발표는 11곳에서 진행된다. 경기 고양시 삼송동 '삼송자이더빌리지(블록형단독주택)', 경기 과천시 별양동 'e편한세상시티과천',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래미안연지아반파크'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11곳으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신내역힐데스하임잡종은',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정역서희스타힐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e편한세상시민공원' 등이다.

견본주택은 3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페라즈스카이', 강원 춘천시 우두동 '춘천우두지구 EGthe1(B3,4)'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날짜	구분	시	구/군	읍/면/동	아파트명	
7/1 (월)	접수	경기	고양시	삼송동	삼송자이더빌리지(블록형단독주택) ♣	
					발표	경남 진주시 정촌면
	계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신내역힐데스하임잡종은(C1) (~7/3)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정역서희스타힐스(2BL) (~7/3)
					화성시정역서희스타힐스(3BL) (~7/3)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e편한세상시민공원(1단지) (~7/3)
					e편한세상시민공원(2단지) (~7/3)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제주에듀투치울라 (~7/3)					
7/2 (화)	접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 1순위(당해지역)			
	발표	경기 고양시 삼송동	삼송자이더빌리지(블록형단독주택) ♣			
7/3 (수)	계약	대구 달성군 다사읍	힐스테이트다사역 (~7/4)			
			충남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범양메우스알파(민간임대) (~7/4)		
7/4 (목)	접수	경기	성남시 대장동	성남판교대장지구제일풍경채(A5) 1순위(당해지역)		
				성남판교대장지구제일풍경채(A7, A8) 1순위(당해지역)		
	계약	경기	안양시 비산동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 1순위(당해지역)		
				경기 평택시 고덕하늘채시그니처 1순위		
				대구 서구 내당동	e편한세상두류역 1순위	
				전남 순천시 해룡면	순천복성지구한신더휴 1순위	
				경기 과천시 별양동	e편한세상시티과천 ♣	
발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모아엘기파크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충남도청이전도사IRM6(국민임대)					
7/5 (금)	계약	경기	고양시 삼송동	삼송자이더빌리지(블록형단독주택) (~7/4)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 2순위	
	접수	경기	성남시 대장동	성남판교대장지구제일풍경채(A5) 1순위(기타지역)		
				성남판교대장지구제일풍경채(A7, A8) 1순위(기타지역)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 1순위(기타지역)		
				경기 고양시 고덕하늘채시그니처 2순위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반도유보라(RC2) 1순위	
발표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1순위				
7/6 (토)	계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솔재2차 (~7/9)			
			발표	대구 달서구 죽전동	빌리브메트로뷰 ♣	
	접수	대구	달서구	죽전동 빌리브메트로뷰 2순위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황금센터 1순위(기타지역)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로진아리채리버뷰 2순위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스위트엠센터 2순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영암용왕(행복주자료: 부동산114) (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발표	대구 달서구 죽전동	빌리브메트로뷰 ♣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 “조양호 회장 사택서 청소·빨래한 경비업체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

### 법원 “부당한 지시 거부 못했을 것... 지나친 법 적용”

소속 경비원들이 고(故) 조양호 회장 집을 회장의 사택에서 경비업무가 아닌 청소, 빨래 등의 업무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 허가 전체가 취소된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달 21일 경비업체 A사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비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은 A사는 2014년 1월부터 조 회장의 사택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소속 경비원들이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 애견관리, 청소, 빨래, 조경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기사가 보도되면서 2018년 8월경에 경비업 허가 전체(시설경비

업무, 특수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가 취소됐다.

A사가 사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취소 근거가 됐다. 경비업법은 5개 경비업무별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면 경비업 허가 전체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사는 “사택에서 근무한 경비원들은 조 회장 등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업무를 했던 것이고, 회사에서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 회장 등은 사택 경비원들에게 전화 연결, 정원

휴고르기, 정원 물주기, 사택 청소, 애견 배변물 청소 및 운동 등의 일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사택에 근무 하던 관리소장(A사 소속)은 이를 알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는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 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아 소속 경비원을 이 외의 호송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등에 종사하게 한 일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그 자체로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경비원들이 애견 관리, 청소, 빨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경비업법이 규정하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A사가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묵인·방조해 실질적으로 지시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짚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5000 그루 수국의 유혹

30일 부산 영도구 태종대 유원지 내 태종사에 여름꽃 수국이 만개해 나들이객들이 북적거리고 있다. 태종사 일대는 30여 종 수국 50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뤄 여름 명소가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막한 태종대 수국꽃 문화 축제는 이달 7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 서울시 ‘나눔카’ 2022년까지 1만대로

### ‘딜카’ ‘피플카’ 신규 참여... “준대중교통 수단으로 키운다”

서울시가 승용차 공동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7월부터 ‘나눔카’ 3기 시대의 본격적인 막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3기 사업을 통해 쏘카, 그린카에 더해 딜카, 피플카 등 총 4곳으로 나눔카 사업자를 늘려 시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4700대 수준인 나눔카를 2022년까지 1만 대로 2배 이상 늘려 준(準)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3년 서울형 승용차공동이용서비스로 출범한 나눔카는 1기 사업 시기인 2013~2015년 약 3000대에서 2기 사업 시기(2016~2018년)에 4700대 수준으로 증가한 바 있다. 누적이용자 수는 7만2600여 명(1기)에서 21만여 명(2기)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나눔카 전용구역 1000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공영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156면을 확보해 딜카, 피플카 등 사업자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 전용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달 조례를

개정했다.

녹색교통지역인 한양도성 내부에는 세종대로, 퇴계로 등 도로공간 재편과 연계해 도로 위에서 간편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나눔카 노상 대여소를 확대할 전망이다.

아울러 3기 사업부터는 ‘통합편도존’ 등이 새롭게 시범 도입된다. ‘통합편도존’이 조성되면 사업자와 관계없이 편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나눔카 주차면을 제공하면 제공자에게는 나눔카 이용요금 50%를 할인해주는 ‘동네카’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청년 창업자, 장애우, 저소득층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3기 나눔카 출범을 위해 나눔카 확대와 신규 서비스,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주요 내용에 합의하고 7월 1일 4개 사업자와 협약을 맺는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나눔카 3기를 맞아 더 많은 시민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기차 확대, 차량공유 문화 확산 등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한 나눔카의 역할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 “조건부 상여금도 고정성 있다면 임금”

### 대법, 미지급 버스회사 유죄 확정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도 고정성을 띠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관광버스회사 대표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 까지 근무한 직원 A 씨의 임금 150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효진 기자 js62@

## 外人이 꼽은 ‘방탄투어’ 성지는 강릉 주문진

### 앨범 재킷 촬영 ‘향호해변’ 1위

방탄소년단(BTS)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이들이 뮤직비디오와 앨범 재킷을 촬영했던 국내 여행지에 대한 한류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촬영 장소들을 찾아가 인증샷을 남기는 이른바 ‘방탄투어’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트렌드로 떠올랐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한국홍보 8개 외국어 사이트를 통해 실시한 ‘BTS 발자취 따라가고 싶은 한국관광 명소 TOP 10’ 인기투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설문에

는 총 137개국 2만2272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했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은 가장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앨범재킷 촬영을 위해 향호해변에 버스정류장 세트를 설치한 ‘강릉 주문진(21.8%)’이라고 말했다. ‘부산 다대포해수욕장(12.2%)’, ‘담양 메타세콰이어길(12.1%)’, ‘서울 라인프렌즈 이태원점(11.8%)’ 등이 뒤를 이었다.

10대에서 30대는 강릉 주문진, 40대는 라인프렌즈 이태원점, 50~60대는 담양 메타세콰이어길을 선택했다.

김소희 기자 ksh@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7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19. 07 VOL. 05

다시 빛을 향하기 위해  
“평생 일귀  
놓은 꿈  
나누며 살고 싶다”

남새를 추억하고  
향기에 취하고  
**scent**

**COVERSTORY 남새를 추억하고 향기에 취하고**

PART1. 기억 속 향훈 - 까마득한 남새가 새삼 그립습니다  
PART2. 남새에 관한 설문조사 - 당신의 남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ART3. 악취 발생시키는 집먼파와 해결법 - 물·일·벌, 악취의 근원?  
PART4. 일 남새 고민 - 구취 집으러다 만나는 소통 공간  
PART5. 일상 속 악취 솔루션 - 상쾌한 여름을 위한 천연 탈취 DIY  
PART6. 향기의 품격 - 한때사회는 향기가 고르다  
PART7. 인생의 내음 - 향기를 부르는 이야기들

**플레이팅 시니어 위협하는 심장병**

인간의 생명활동이 정지되는 상황, 즉 사망을 판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호흡과 심장박동의 유무에 달려 있다. 심장이 우리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장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심장에 발생하는 질환을 흔히 심장병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종류가 다양해 하나의 병이라고 말하기 모호할 정도다. 심장병 중 중장년이 조심해야 할 대표적 질환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순환기학과 장성원(張成元)·최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귀촌**

별생각 없었던 귀촌이 별나게 즐겁습니다

별별 생각과 공리를 더하고도 망설이게 되는 게 귀촌이나 귀농이다. 그러나 김석봉 씨는 별생각 없이 시골로 왔다. 무슨 성취처럼 영롱한 오랑중의 현몽이 그를 이끈 건 아닐 것이다. 그는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거나, 자나 깨나 귀촌을 숙원으로 여긴 바가 없었으니 하필 추미진 산골로 따라가는 계기를 받았을 리 만무하다. 여하튼, 별 생각 없이 귀촌한 석봉 씨는 별 탈 없이 살아왔다. 별생각이 없었으니 별 풀림도 없었을 청량지다. 사실은 별 풀림이 벌어졌다. 별별 일이 일어나며 살아오는 속내가 술술 풀려나갔다.

**신라비가 만난 사랑**

심아 있는 한 인생은  
인생이 사랑이다  
시인  
이규리

이억되고 살 거 없다  
물처럼 살면 빛나거든  
전방위 예술가  
문순우

정열로  
함박웃음 짓다  
미술사 겸 영화인  
조용서 씨

**타박타박 신책 푸른 바다 벗삼아 걷는 여수 낭만길**

하루 동안 여수를 일주 여행하고 싶다면, 오토도를 중심으로 한 해장공원 일대를 둘러보길 권한다. 동백숲이 그윽한 오토도와 스릴 넘치는 해상케이블카, 항구 정취가 가득한 종포해장공원, 여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빅오쇼와 낭만포차 등을 두루 경험할 수 있다. 걷는 내내 여수의 비릿비릿 바다가 펼쳐지는 이 코스를 소개한다.

**고고하게 인천·경기편**

고고는 오래된, 고상한, 뛰어난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 수사에 걸맞은 맛깔, 이름하여 ‘고고하게’ 찾아간다. 지하철 인근으로만 산책해 찾기도 쉬우니 어서 고고(go-go)를 외치자!

**시니어 밥상**

올레이드 사찰음식  
원기회복에 도움 주는  
보양 레시피

**상속과 증여 톨마보기**

김성우 변호사  
내 재산은 어디로  
‘상년후견제도’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 美中 무역분쟁 휴전·남북미 정상회담, 금융시장 영향은?



## 김남현의 일가일부

미중 무역분쟁이 휴전에 돌입한 데다,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만남이 성사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당분간 위험 선호현상이 확산할 것이라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은 1100원,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20bp (1bp=0.01%포인트) 상승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위안화 환율 하락 수준과 강세(하락) 속도, 미 연준(Fed) 및 한국은행 금리인하 여부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 관측이다. 주요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대내외 펀더멘털을 주목할 것이라 전망도 있었다.

◇ 원·달러, 하락압력 가중 = 원·달러는 위험 선호 현상이 확산하며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다만 하락 수준에 대해서는 다소 갈렸다. 당장은 1150원 하향 테스트가 가능하겠지만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위안화 흐름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이는 최근 원·달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5월 17일까지만 해도 1195.7원을 기록하며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던 원·달러는 지난달 25일 1156.2원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하락폭은 39.5원(4.10%)에 달했다.

전세기 삼성전물 연구원은 "미중 무역협상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다. 주요 20개국(G20)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를 확인했다"면서도 "이로 인해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원·달러 하락압력을 저지하는 요인이 되겠다. 또 일본이 (강제징용 대항조치로) 반도체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제재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글로벌 무역분쟁이 계속되는 만큼 긴장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재료 자체는 쇼트(달러 매도·원·달러 환율 하락) 방향



이다. 최근 며칠 사이 외국계은행을 중심으로 롱(달러 매수) 포지션을 많이 해소했다. 기준 포지션을 다 정리함으로써 포지션이 가벼워 쇼트 구축에도 부담이 없다"며 "그간 외환시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결렬 기대감도 남아 있었다. 반기 말 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가 거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미뤄던 수출업체들

는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선다면 1100원도 깨질 수 있겠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빠를 것 같지 않다. 4분기(10~12월) 원·달러 평균을 1130원으로 보고 있다. 1100원까지 빠르게 하락했다가 반등 후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위험 선호 확산... 원·달러 환율 하락압력 최대 1100원 전망 위안화 하락 속도·美 연준·한은 금리인하 등이 주요 변수 채권은 직접적 영향 적겠지만 20bp 상승 가능성 열어둬야

의 매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원·달러 환율 하락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민 연구원은 "관건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 하락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는 것이다. 작년 말과 연초 6.3위안까지 밀렸을 때 중국은 경제 타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국 외환당국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성의 표시를 위해서라도 속도 조절 없이 이 레벨까지 열어줄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의 프록시(proxy) 통화(대리 통화)로 여겨지는 원화와 호주달러, 대만달러, 뉴질랜드달러 등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당국이 6.3위안을 용인한다는 가정하에 원·달러는 연초 지지선이었던 1108원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1110원까지

계 하락했다. 수출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향후 변수는 연준 금리인하 여부와 국내 반도체 가격 반등 그리고 이에 따른 수출회복 여부, 무역분쟁에서의 자동차 관세부과 등이다. 통상이슈가 완전히 풀렸다고 볼 수 없다"며 "하반기 원·달러 상하단을 1120원에서 1200원으로 보고 있다. 3분기 내에 저점을 확인한 후 반등하는 흐름일 것으로 본다. 7월 시장은 1분기 같은 분위기를 재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회성 이벤트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개 상황을 알기 쉽지 않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면 원·달러는 다시 오를 수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도

향후 전개 상황을 안심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많다. (당장) 미국과 한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향후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원·달러는 등락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당국 입장에서는 원·달러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쪽에 방향을 맞춰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채권, 펀더멘털·한미 금리인하 시점 촉각 = 채권시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당장 위험자산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미중 간 정상회담은 별개였다고 본다. 예전에도 그렇듯 각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며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줄지는 판단이 쉽지 않다.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제한적이라 본다. 채권시장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겠다"고 예측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남북미 회동은 금융시장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무역분쟁이 더 중요하다. 다만 해소가 아닌 미뤄놓은 정도로 보인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명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에서는 G20에서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많았다. 미중 간에 화해모드로 돌아서면서 위험자산가격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 금리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까지 반영되면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리가 반등하더라도 20bp 이상을 넘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경제지표에 다시 관심이 돌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이번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예상했다.

김상훈 연구원은 "정치적 이벤트 후 경제지표에 다시 관심이 돌릴 것으로 본다.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가도 반등할 수 있지만 2%를 넘진 어렵다"며 "조만간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 성장률 전망치를 2.5% 정도로 낮춘다면, 한은도 당초 전망치(2.5%)보다 0.1%포인트 이상 더 낮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준은 7월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한은도 이를 확인한 후인 8월에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후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무역협상 진전 여부 등이 되겠다. 다만 추가 인하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원화 채권시장은 기준금리와의 역전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연구원은 "당장 중국과 유로존에서 구매관리지수(PMI)가 발표된다. 경기지표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유로존과 미국 간 PMI 격차도 중요하게 유로존 PMI가 버티주지만 한다면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요인이 될 것"이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담도 중요하다. 유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인플레이션 상승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금리가 상승 조정되더라도 매수 타이밍이라 본다"고 봤다. 그는 또 "7월 연준이 인하에 나서면 한은도 8월에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본다"며 "한미 모두 연내 한 번 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 화제의 신간

1천만 관객 대종상 수상 영화 <관상>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

# 십우도

백금남 장편소설

## ‘소를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보다’

한 개인의 정신적 발전 과정을 불교적 관점으로 추적한 역사이다. - 이창준 소설가

제대로 갖추어진 소설로서의 문체와 문장력, 우선 재미있게 끌고 가는 힘이 있다. - 정규용 문학평론가

언어를 잘 귀여 갈무리한 문체의 특성과 백정의 한과 사무친 실용의 용어리를 불교적 사유와 순환의 구조 속에서 감동으로 말해 주고 있다. - 김선학 문학평론가·교수

한(恨)이라는 감성적인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백정의 이야기를 도(道)로 승화시킨 점이 아마 가장 훌륭한 점이 될 것이다. - 서정기 문학평론가·교수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 무한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 +100<sub>yd</sub>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최적화 기술 적용

##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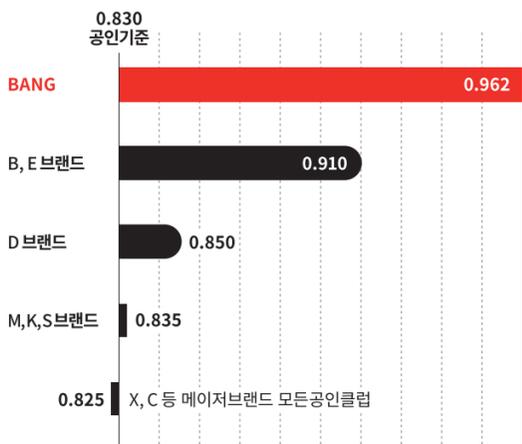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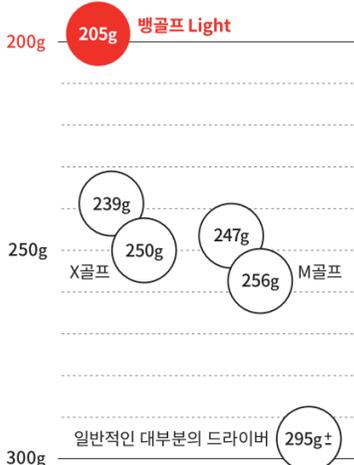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 고반발 기술 격차



### 경량화 기술 격차



###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 (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 “TV에 AI 접목... 고객 중심 서비스서 답 찾겠다”

## 유료방송 보폭 확대...원성운 KT스카이라이프 고객본부장

### 지난해 12월 KT서 자리 옮겨...“정체된 사업에 활력” 특명 4월 출시한 토평 서비스, 3개월 새 1만명 가입 성공적 안착

KT스카이라이프가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탑재하고 유료방송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최근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1년째 표류하고, IPTV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는 등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 AI와 함께 요급한 등 고객 중심서 해답을 찾겠다는 각오다.

원성운(사진) KT스카이라이프 고객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4월부터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요금으로 TV에서 OTT를 이용할 수 있는 OTT 통합 플랫폼 ‘토평’을 출시했다”며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구글 AI 디바이스를 방송에 접목시켜 고객의 TV 환경을 보다 스마트하게 구현할 수 있는 ‘스카이라이프 AI’ 상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어 “결국 스카이라이프가 출시한 모든 서비스의 중심은 ‘고객’이다. 고객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고객 편익에 계속 집중한다면 자연히 시장에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유료방송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KT에서 KT스카이라이프로 자리를 옮겼다. KT에서 마케팅부문에서 인터넷사업 담당을 진두지휘한 그는 스카이라이프에 고객 본부장을 맡으면서 정체된 스카이라이프 사업에 활력을 넣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트렌드인 AI 기능을 TV에 접목한 것이다. 스카이라이프는 4월 안드로이드TV와 바로 연계, 확장



가능한 ‘구글 홈 미니’ 결합을 통해 ‘스카이라이프 AI’ 서비스를 출시했다. 원 본부장은 “구글과 결합한 스카이라이프 AI는 음성으로 스카이라이프를 제어하는 것은 물론 음악감상이나 일반적인 지식, 날씨, 뉴스, 지역정보를 알려주는 기존 AI 스피

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며 “22개 언어 지원 및 동시통역서비스, 보이스매치(6명 사용자 음성구분)는 국내 여러 AI 대비 차별적인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라이프 AI 팩 서비스도 함께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구글 홈 미니로 제어되는 홈 IoT 가전제품을 스카이라이프에서 간편하게 36개월 할부로 구매할 수 있다.

4월 출시한 토평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토평은 고객이 모바일 뿐만 아니라, TV에서 이용하길 원하는 OTT(유료: 폭, 왓차, 무료: 유튜브) 서비스를 TV플랫폼에서 리모콘으로 통합결제 구매가 가능하도록 이용자 관점의 간편·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출시 후 3개월간 약 1만 이상 가입되며 출시 초기 고객의 주목을 끄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연내 고객이 찾는 OTT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스포츠, 어린이, 애니 등 장르별로 다양한 OTT 사업자와 제휴를 논의 중이다. 김법근 기자 nova@

## 계시판

### 강태일 국장, 세계관세기구 고위직 당선

관세청과 외교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3·134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서 강태일(51·행시 37회)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WCO 능력배양국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부터 2024년까지다.



### 고재현 국제선급연합회 전문위원장에

한국선급은 고재현 선임 수석검사원이 국제선급연합회(IACS) 이사회에서 검사전문위원회 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고 선임 수석검사원은 1987년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한국선급에 입사한 후 국내외에서 선박 검사원 및 심사원으로 활동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이다.



###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이미옥

로레알코리아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하고,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이 주관하는 ‘2019 제 18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학술진흥상 수상자로 서울대약학대학 이미옥 교수가 선정됐다.



### 오투기합태호 학술상에 정명수 교수

오투기합태호재단은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20회 ‘오투기합태호 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정명수 이화여대 식품공학전공 교수를 시상했다. 정명수 교수는 친환경적 첨단 식품 가공기술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공을 인정받았다.



## 〈홀플러스〉

### 임일순 사장, ‘손편지’ 이어 협력사 릴레이 간담회

#### 제도약 위한 소통 확대...신선식품 9개사 대표와 4시간 토론

임일순(사진) 홀플러스 사장이 제도약을 위한 카드 ‘소통’을 꺼내들었다.

홀플러스는 임 사장이 최근 ‘자필 손편지’로 임직원을 격려한 데 이어 협력사 대표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백여 협력사를 한 번에 만나는 콘퍼런스 형식에서 벗어나 카테고리별 주요 협력사 대표를 소그룹으로 만나 4시간가량의 ‘곁장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작은 신선식품이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홀플러스 본사에서 열

린 ‘신선식품 동반성장 파트너 간담회’에서는 돌코리아, 화강영농조합법인, 정아랑영농조합법인, 청원생명, 동우농산, 진우상사, 늘푸른영애조합법인, 참푸드, 정다운 등 9개 신선식품 협력사 대표와 임 사장, 신선식품 팀장들이 만나 주요 상품 품평과 함께 상품 개발, 매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임 사장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묵음’이었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조사에 가장 좋은 거래처란 자신들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 줄 수 있는 채널이나



아나이에 달렸다. 저는 목숨을 걸고 협력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는 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묵음’이라는 단어를 40회 이상 언급했다.

임 사장은 “우리는 총수나 계열사가 있는 타 유통사와 달리 독자적이고 신속한 결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변신할 수 있다”며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홀플러스는 6개월 만에 16개 점포를 창고형 할인점과 대형마

트의 강점을 합친 스페셜로 전환했고 모바일 사업, 코너스, 홀플러스익스프레스, 데이터 경영, 신선혁명 등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온라인 경쟁에서의 자신감도 내비쳤다. 임 사장은 “온라인 시장에서도 독창적인 유통 운영모델을 통해 홀플러스만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신선식품 품질과 운영의 경쟁력이 홀플러스 온라인 사업을 보다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끝으로 “유통업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지속 불가능한 파트너 산업”이라며 “고객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가치와 우수함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협력사를 독려했다. 백미선 기자 only@

## 인사

- ◆이투데이 △부국장 겸 부등산부장 조철현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정보 △대변인 김진근 △예술정책관 조현태 △지역문화정책관 전병국 △소통정책관 문영호 △소통지원관 김성일 △콘텐츠정책국장 김현환 △체육협력관 박용철 △관광정책국장 최병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박영국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담당 이경훈 △국장급 승진 △저작권국장 윤성진
-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정보 △농업정책국장 김덕호(식품산업정책관) △과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문지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장 조현호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이은섭 △국립종자원 경남지방장 김보람 △과장급 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전익성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후대검역과장 이영남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 이지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김도빈
- ◆산림통상지원부 △과장급 정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김성복
- ◆환경부 △개방형 직위(국장급) 임용 △국립생물자원관장 배연재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정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소장 고희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정숙 △외국인력담당관 안대섭 △산업보건과장 김동욱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최영범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남부지청장 안승철 △서울관악지청장 서범석 △의정부지청장 김남정 △안산지청장 이규원 △평택지청장 이정민 △통영지청장 박종일 △포항지청장 김경태
- ◆국토교통부 △과장급 임용 △구지현 장관정책보좌관
-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정보(특허청 파견) △김주화 △과장직위 승진 △광주전남지법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김기대 △벤처투자과장 김주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장 김호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장 윤은경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순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은희

- ◆조달청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운영과장 이창민 △서기관 신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 김영훈
- ◆특허청 △의료기술심사팀장 신동환 △정밀부품심사과장 고준석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장 송대중 △특허심판원 심판관 이수형
- ◆산림청 △과장급 정보 △산림휴양등산과장 송경호 △산지정책과장 김영혁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장 이재원 △산림교육원 재해방역교육과장 김기환 △국립산림종종관리센터장 이용석
- ◆국민연금공단 △정보(지역본부장) △대구지역본부장 김백기 △정보(지사장) △영등포지사장 이태갑 △양천지사장 박영숙 △충주지사장 박성업 △동래구정지사장 채홍무 △마산지사장 정명호 △은평지사장 오창근
- ◆근로복지공단 △승진(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이상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광업 △대구지역본부장 최창식 △승진(1급) △남양주시지사장 남해영 △춘천시지사장 한만기 △강릉지사장 최재석 △원주시지사장 고리경 △부산북부지사장 허정 △대구서부지사장 정연환 △포항지사장 성우은 △대구업무상질병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군산지사장 최영안 △대전병원 행정지원과장 안병로 △정보(1급) △보통계정국장 민해수 △의료사업본부장 정기배 △서울서부지사장 김수연 △안양지사장 윤덕용 △고양지사장 김용철 △성남지사장 정창균 △서산시지사장 우갑재
- ◆도로교통공단 △정보 △갑사실장 박석훈 △미래전략실장 김중호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 김중갑 △미래전략처장 김경태 △기획예산처장 정연철 △혁신정책처장 이민정 △사회기치처장 유태선 △재난안전처장 조철원 △교육운영처장 권오준 △서울특별시지방법장 강동수 △강원도지방법장 주두환 △대전·세종·충청남도지방법장 박원범 △울산·경상남도지방법장 이영재 △충원운전면허시험장 김재원 △태백운전면허시험장 최용삼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노명진 △예산운전면허시험장 김경석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문태학
- ◆한국환경공단 △별정직이사대우 임용 △환경안전지원단장 정득중 △부서장 정보 △경영혁신처장 최용석 △경영지원처장 전준희 △기후변화대응처장 이선우 △매출관리처장 윤완우 △하수도처장 김덕진 △상수도처장 위우량 △토양지하수처장 김용대 △환경경시실처장 류중대 △환경에너지시설처장 신명석 △수생태시설처장 최철식 △화학물질관리처장 광영돈

- △화학물질평가과장 이광순 △운영지원처장 박석훈 △물산업실증화처장 백선재 △물산업진흥처장 조재연 △환경전문심사위원장 김동은 △환경기술연구소장 박광규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정석현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장 김관수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김상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박재영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한영민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정동희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오세철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장 홍성곤 △호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김상원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장 양경환
- ◆국립공원공단 △본사 차·실장급 정보 △갑사실장 정정권 △성과혁신실장 강동익 △1급 승진 및 정보 △홍보실장 손영민 △공원환경처장 박진우 △오대산 국립공원사무소장 이진범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박기연 △내장산생태탐방원장 김중식 △2급 승진 및 정보 △행정처 총무부장 하동준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황규태 △자원보전처 해양자원부장 정장방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김현교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주재우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조경옥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은창 △본사 부장급 정보 △탐방복지처 탐방정책부장 박영준 △갑사실감사부장 홍성광 △공원사무소장급 정보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김병재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설정옥 △지리산생태탐방원장 김철기 △기아산생태탐방원장 신유근 △소백산생태탐방원장 유경호 △울릉도·독도생태탐방원장 최정호 △경상북도생태탐방원장 김희철
- ◆한국감정원 △보임 △서남권본부장 박철형 △서울남부지사장 채성훈 △강릉지사장 이남훈 △전주지사장 조주현
- ◆주택금융공사 △지역 본부장 정보 △수도권서부최혁순 △동남권 조상현 △서남권 오상연 △부장 정보 △경영혁신부 이규진 △준법지원부 류숙현 △신탁자산부 신일용 △주택보증부 우병국 △채권관리부장 대혁 △업무지원부 서동우 △인사부 한윤석 △리스크관리부 객해일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 이재현 △지사장 정보 △대전 채석 △울산 객태호 △경기중부 김용배 △충남 오세일 △전남 주창로 △채권관리센터 이영열 △세종 조성교
- ◆코스콤 △전무 △자본시장본부장 권오현 △상무

- △IT인프라본부장 권영우 △본부장 △혁신전략담당관태혁 △미래성장본부장 김계영 △부서장 △금융마케팅부서장 유영권 △금융서비스부서장 이기영 △U2L 사업부서장 김명수 △시장업무부서장 나용철 △블록체인BizIT 부서장 김미선 △데이터오피스사업부서장 김도연 △경영혁신실장 정남섭 △품질관리실장 송재원
- ◆한국금융연구원 △승진 △김석기 연구위원 △송민기 연구위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 박상규 △인공지능연구소장 이윤근 △통신미디어연구소장 방승찬 △지능화융합연구소장 박종현 △ICT창의연구소장 강성원 △중소기업사업지원본부장 박종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승진(선임연구원) △이태진 △이현주 △승진(연구위원 1급) △이윤경 △승진(연구위원 2급) △임완섭 △황도경 △승진(부연구위원) △이민정 △장인수 △승진(책임행정원) △이혜선 △승진(선임전문원) △박호열 △이수연 △승진(선임행정원) △김지연 △양주형 △승진(무기계약직 전문원 4급) △염아미 △정혜란 △정보(팀장) △정보통계연구실 사회조사팀장 조남주 △경영지원실 인재경영팀장 양주형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서장 △사회적가치지원실 박은일 △전공연구개발특구본부장 서동경 △강소특구지원본부장 이진재 △팀장 △사회적가치지원실 사회적가치평가팀장 유진혁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총괄팀장 박후근 △기술혁신팀장 김시한 △전공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장 한승열 △강소특구지원본부 강소특구기획팀장 김대현 △갑사실감사팀장 최성필
- ◆국립생물자원관 △국장급 임용 △국립생물자원관장 배연재
- ◆한국천문연구원 △부원장 박병근 △기획부장 안효창
- ◆회재보험협회(승진) △이사대우 △중앙지부장 김광섭 △화재환경시스템팀장 정재근 △부장 △교육홍보팀장 오정규 △대구경북지부장 조영진 △광내화팀장 최동호 △차장 △방재건설팀장 정대영 △특수보험팀장 김형준 △융합방재연구팀 노호성 △융합방재연구팀 홍성호 △과장 △중앙지부 김기현 △부산경남지부 문상훈(이동·보직발령) △팀장 △기획팀장 장영환 △교육홍보팀장 김영은 △인사회계팀장 오정규 △점점전략팀장 유근호 △연구조정팀장 문성호 △융합

## 부음

- ◆김영길(전 한동대 총장·한국창조과학회 초대 회장) 별세, 김영애 씨 남편상, 김호민(스파크랩 공동대표)·송민 씨 부친상, 박병희(미국 파란아카데미 대표) 씨 장인상, 이정민(강남삼포니오케스트라 단원) 씨 사부상 =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고호실, 발인 2일 오전 6시, 02-2227-7500
- ◆이형구(유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씨 별세, 안혜경(전 수원 영신중 교사) 씨 남편상, 이정우(세로남교육센터 영어교사)·완우(단국대학교 상담학과 석사과정) 씨 부친상, 이준구(뉴시스 경기남부본부 국장) 씨 형님상, 이현우(HIP프린팅코리아 책임연구원) 씨 숙부상 = 28일, 수원성민센트럴병원 장례식장 8~9호실, 발인 2일 낮 12시, 031-249-8468
- ◆전종문 씨 별세, 전주승(우리은행 여지프로농구 단코치) 씨 부친상 = 6월 2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 발인 2일 오전 5시, 02-3010-200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G20서 주목받은 일본의 데이터 유통전략

오사카 트랙은 타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을 통해 타국으로부터 중요한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고 있다고 미국은 분석한다. 새로운 국제 룰을 만들어 중요한 데이터가 중국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분출되면서 자유무역주의가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페플라스틱 처리, 파리협약 이행, 세계무역기구(WTO) 개편 같은 현안들도 논의되었지만, 특히 새롭게 주목받은 것은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에 대한 국제 룰을 만들자는 일본의 제안이었다.

올해 1월 아베 일본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회의에서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에 관한 국제 룰을 제정하는 '오사카 트랙'을 제창하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이 이러한 오사카 트랙을 제창한 배경에는 데이터를 국제 간에 보다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것이 세계 경제 전체에 플러스가 될뿐더러 무역자유화 추진과 공동되는 사항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나 한꺼풀 벗기면 데이터 유통 분야에서 미국·유럽·일본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림수가 들어 있다. 이른바 중국의 디지

털 보호주의,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을 겨냥한 대항책이다.

중국 정부는 사이버 시큐리티법 아래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얻은 고객정보 등을 국외로 갖고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프로그램의 설계도에 들어가는 소스코드의 개시(開示)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정보를 중국 정부가 부당하게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오사카 트랙은 타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을 통해 타국으로부터 중요한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고 있다고 미국은 분석한다. 새로운 국제 룰을 만들어 중요한 데이터가 중국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자국을 봉쇄하기 위한 이러한 데이터 유통 국제 룰 제정에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게 뻔하다. 결국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상황이 계속되어 국제 룰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본주의에서 데이터 자본주의로 이행할 때 생기는 폐해를 막겠다고 일본이 선두에 나선 것이다. 데이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중심 엔진이 금융으로부터 데이터로 옮겨 간다는 것을 뜻한다. 제한 없이 축적된 디지털 데이터가 사람과 기업을 수치화해 기업이나 개인이 이를 활용할 때 적정 가격에 제공한다. 이런 환경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쥐고 있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과 같은 미국의 거대 플랫폼과,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중국의 거대 플랫폼들이 세계 자본시장을 석권하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GAFA를 주축으로 한 거대 IT기업 대책에 착수해 4월 말 최종 보고서 내놓았다. 다시 말해 거대 IT기업 규제 방향성을 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데이터 독점을 감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데이터의 부당한 취득을 못하도록 거대 IT기업에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고, 기업 매수 등에 있어서도 데이터 독점이 되지 않도록

견제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다. 거대 IT기업들은 공짜로 지도와 검색 서비스, 각종 어플리케이션과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본인의 연령, 성별, 취미, 행동규범과 생활패턴 등의 정보를 취득해 왔다. 그 개인정보의 무제한 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광고 등에 이용 시 '정지권(停止權)' 신설 등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과세 룰의 개정이다. 거대 IT기업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경을 넘어 사업을 전개한다. 이 때문에 지점과 공장 등의 '거점'에 과세하는 현행 룰로는 대응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납세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세금 도피'를 허락해 준 셈이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제시한 오사카 트랙은 이제 세계 경제가 디지털 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데이터의 주도권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글로벌 환경을 염두에 두고 한국도 디지털 경제의 청사진과 실행 전략을 꼼꼼히 점검할 때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고모리 시게타카 '후지필름, 혼의 경영'

역사가 된 필름 시대, 후지의 생환기

필름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뇌리에 두 가지 브랜드가 뚜렷이 남아 있다. 하나는 코닥이고 다른 하나는 후지필름이다.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필름의 역사 그 자체였던 코닥은 2012년 파산하고 말았다. 그러나 후지필름은 생환에 성공한 것은 물론이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맡아서 성공이란 과실을 거둔 주인공인 고모리 시게타카 후지필름홀딩스 회장의 '후지필름, 혼의 경영'은 후지필름 성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그는 2003년 대표이사 사장 겸 CEO에 취임했고, 2012년부터 대표이사 회장 및 CEO를 맡고 있다.

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리더의 역할을 이렇게 말한다. "1인자는 '진검의 승부', 2인자는 '죽도의 승부'를 행한다. 진검의 승부에서 패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한다." 조직의 1인자와 2인자가 짝이지는 무게감은 크게 차이가 난다. 2인자는 피할 수 있는 출구가 있지만 1인자는 그렇지 못하다.

리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 자체가 고스란히 그의 삶에 반영된다.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어떻게 세상살이를 바라봐야 하는가. 각각각색의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자의 핵심 단어는 '전쟁'이다. "최고경영자가 지는 것은 회사가 지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도 끝이지만 회사에도 피해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기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가 CEO로 취임한 이후에 세 가지, 즉 철저한 구조 개혁과 새로운 성장 전략의 구축, 연결 경영 강화 방침을 내세워 개혁

을 추진한다. 2003년 CEO에 취임하고 나서 2004년 2월 중기 경영 계획 'VISION 75'를 발표한다. 여기에 위의 3가지 기본 방침이 담겨 있다. 이 방침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이 파워 업과 동기 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는 이 방침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절박감을 이렇게 직원들에게 알렸다.

"현 상황을 도요타로 예를 들면, 자동차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사진 필름의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태를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의 위기 극복 전략은 대단히 치밀하였다. 그는 CEO가 되기 이전부터 기술 개발 부서의 최고책임자에게 후지필름의 기술 재고 조사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사회의 필요와 비교해볼 것을 지시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엄정한 자기 평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1년 6개

월 정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나온 것이 '4분면 지도'였다. 가로축에는 현재의 기술과 미래의 기술이 표시되어 있고, 세로축에는 현재의 시장과 미래의 시장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 지도는 후지필름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지도 또는 나침반 역사를 독특히 담당하게 된다.

그는 이 지도를 기초로 주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임직원들과 힘을 모은다. 기존 기술로 기존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새로운 기술로 기존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기존 기술로 새로운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 같은 탐구 과정에서 그는 후지필름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로 시장의 니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의약품 산업 진출이 단행된다.

위기탈출법으로부터 시작해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실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귀한 책이다. 공병호연구소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르주 상드 명언

"꽃을 꺾기 위해 가시에 찔리듯, 상처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상처받는 것이다."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 대표적 여성 작가. 낭장 여인으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한 그녀는 여러 문인,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었다. 특히 여섯 살 연하인 시인 뮈세, 음악가 쇼팽과의 모성애적 연애 사건은 당시 상당한 스캔들을 일으켰다. 또한 화가 들라크루아, 소설가 플로베르와의 우정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04~1876.

☆ 고사성어 / 옥오지애(屋烏之愛)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사는 집 지붕 위의 까마귀까지 귀엽다는 뜻.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람 주위의 것까지도 미침을 의미한다. 출전은 설원(說苑). "태공이 마주해 말하기를 '신이 듣기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겸하여 그 집 지붕의 까마귀도 사랑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집 종들까지도 미워진다' 했다[太公對曰臣聞愛其人者兼屋上之烏憎其人者憎其諸鳥]."

☆ 시사상식 / 어부징(abusing)

특정 뉴스 기사를 순위에 올리거나 인기 검색어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클릭 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보통 자극적인 제목·사진 등을 이용해 조회 수를 늘리거나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쓴다.

☆ 속담 /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문설주도 귀엽다

아내가 좋으면 아내 주위의 보잘것없는 것까지 좋게 보인다는 말.

☆유머/애인을 잊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아버지가 연인과 헤어진 아들에게 "지금 세상을 버리고 싶을 만큼 아프지만 한 두 달 지나면 잊힐 거다"라며 위로했다.

아들이 1년은 걸릴 거라고 통명스레 대꾸하자 이유를 물었다. 아들의 답.

"그 애한테 사준 선물이 전부 12개월 카드 할부거든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윤기쁨 자본시장1부/modest12@



병아리를 놓친 까마귀

음산한 울음소리에 새까만 얼굴, 예로부터 까마귀는 반가운 동물은 아니었다. 재미난 조선시대 이솝화화 하나. 매일 무시당하던 까마귀가 갖 사냥한 병아리를 뜯어 먹으려던 찰나, 여우와 마주친다. 여우는 "네 울음소리가 참 아름다운데 목소리를 들려주면 안 되냐"고 청한다. 난생처음 칭찬을 받은 까마귀는 매우 기뻐 입을 벌렸고, 물고 있던 병아리가 떨어지자 여우가 이를 물고 달아났다는 이야기다.

시장에서 개인은 늘 까마귀마냥 소외된 주체로 취급된다.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부족한 정보력, 대다수의 투자 실패 등을 이유로 상대적 약자로 보이곤 한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쥐고 있다. '투자의 신', '수익 100% 보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여우들이 주변

에 넘쳐나기 때문이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칭 전문가들로부터 유튜브, 텔레그램, 카카오톡, 미스리 등으로 원치 않는 정보가 하루 수백 개씩 밀려 들어올 때도 있다.

여우의 꾀임에 넘어가 병아리를 놓친 까마귀처럼 개인 역시 유혹에 넘어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유사주식투자자문사에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7625건에 달했다. 주식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에게 피해 본 투자자는 200명, 피해 금액은 380억 원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언론에도 나오지 않은 호재를 먼저 알고 있다는 개인의 묘한 자신감도 한몫했다고 본다.

정작 개인은 정보의 과잉 속에 갇혀 이

성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단적인 예로 개인투자자의 높은 매매회전율을 들 수 있다. 거래세가 비교적 높은 축에 속하는 나라임에도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회전율이 높다는 건 곧 단타매매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회전율 상위 종목에 화천기계(조국 민정수석), 신일산업(여름 선풍기) 등 테마주들이 눈에 띈다. 투자금액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파란불은 결국 개인의 몫이다.

주식의 승패는 정보의 개수에 있지 않다. '퀄리티' 있는 정보의 개수에 달려 있다. 수많은 뉴스와 정보가 쏟아질수록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 무턱대고 믿기엔 주변에 여우가 너무 많다.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

# 경기침체론, 진짜일까 착시일까

지금 경기는 '나쁜 상황'일까. 아니면 '좋은 상황'일까.

얼마 전 만났던 사업한다는 친구는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웃었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낸 또 다른 친구는 "죽기 일보 직전"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TV에 출연한 한 야당 정치인은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라면서 얼굴을 별경게 붉히고 있었다. 이처럼 글머리 질문에 대한 답은 경기 상황을 느끼는 기업이나 개인, 업종 등에 따라 저마다 다를 것이다.

전체적인 상황을 알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비교를 해보는 것이다. 작년 이맘때와 견주어 본다든지, 업종별·소득별·규모별로 세분화해 서로를 비교해 본다든지 말이다. 하지만 원래 통계라는 것은 어떤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도 달라진다. 숫자는 그대로이지만, 보는 시각의 방향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 상반기 경제지표는 사실 오르락내리락하는 추세였지만, '경기 침체', '경제 위기'라는 키워드가 유독 난무했다. 왜일까. 무엇보다 언론이 경기가 나쁘다는 논조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언론의 속성을 볼 때 '잘한다'라는 내용의 뉴스는 통상적으로 뉴스로서의 가치를 낮게 본다.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으로 이끄는 것이 언론의 역할과 가치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하는 부분보다 못하는 부분, 더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에 익숙하다. 각 언론사의 정치적 스탠스를 떼놓고 보더라도 말이다.

## 데스크칼럼

한지운  
뉴스랩부장



여기에 정부가 상황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낸 것도 문제였다. 정부는 연초만 해도 '실제 경기는 좋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문제가 발생하자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어 있다'라고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추경 통과를 위해 야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인 셈이다. 언론이 경기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이유는 다르지만 정부도 가세해 버리니 '경기가 나쁘다'라는 분위기는 더 공고해져 버렸다. 그렇다면, 체감 경기 측면에서 '경기가 나쁘다'는 신호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받아들이고 있을까.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가져온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근무제는 소비의 방법을 많은 부분에서 바꿨다. 일단 퇴근이 빨라지다 보니 회사 주변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빈도가 크게 줄었다. '회식'이 크게 줄어든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회사가 많은 주요 상관들이 매출 하락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빈상가가 하나둘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체감 경기 최악의 근거로 말하는 '손님 끊긴 썰렁한 밥거리'의 배경이다. 하지만 변화가 손님이 줄어드는 것이 진짜 경기가 나빠서인지, 아니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가져오는 필연적 변화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간 근무제가 가져오는 필연적 변화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없는 것만 있을까. 반대로 볼 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기존 오프라인 상권의 하락 이상으로, 온라인 상권의 성장을 가져왔다. 퇴근이 빨라져 집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것은 반조리 식품이나 간편식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며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라는 유통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다. 또한 음식배달 시장의 확대에도 큰 역할을 했다. 현재 수많은 음식배달 서비스업체가 출현하면서 경쟁에 나서는 것은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장의 창출은 수많은 스타트업의 등장으로 이어지며 경제의 활력을 더하는 순기능을 만든다.

이렇게 수요가 이동하다 보니 기존 소비 채널인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당연히 불황일 수밖에 없다. 음식점과 마트는 그동안 체감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였다. 음식점이나 마트에 사람이 북적이면 경기가 좋은 것이고 사람이 줄면 경기가 나쁜 것이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의 채널이 전환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변화다. 시장은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는데, 경기의 지표로 보고 있는 곳이 과거의 지점이라면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

한 국가의 총체적 경제활동을 뜻하는 '경기'는 작게는 가정 단위인 자영업의 고민부터 크게는 미·중 무역분쟁까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진짜로 경기가 나빠진 것인지, 나빠진 것처럼 착시케 하는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 따져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goguma@

## 시설

### 무역전쟁 휴전·트럼프 투자압박, 불확실성 계속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 휴전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폐막한 일본 오사카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

미 정부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일부 완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화웨이의 하드웨어 판매는 허용하기로 했다. 화웨이 스마트폰과 PC 등 소비자 제품은 미국 기업과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집중 겨냥했던 네트워크장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래금지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 직전 한발씩 물러선 것이다.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핵심 쟁점에 대한 긍정적 타협신호가 나온 것도 아니고, 협상이 재개돼도 난항이 예상된다. 갈등이 언제 다시 불거져 대립이 격화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 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한국이고 보면,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경제의 위기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에 대한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G20 정상회의를 끝내고 방한한 트럼프는 30일 대기업 총수들을 따로 불러모아 만났다.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정희선 현대차·최태원

SK·신동빈 롯데·김승연 한화·손경식 CJ 등 대표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자리였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금보다 대미 투자 확대에 적절한 기회는 없다"며 "앞으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늘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화웨이 제재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는 리스크 해소와 거리가 멀다. 화웨이는 여전히 미 상무부의 거래금지 기업 대상 목록에 올라 있고, 이 제재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미 정부 입장에 아직 어떤 변화도 없다.

모든 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인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우리의 1, 2위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미국과의 동맹 등 안보문제까지 깊이 얽혀 있는 실정이고 보면 대응책 마련도 지난(至難)하기 짝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봉합 수준으로 가고, 최악의 파국을 피하는 방향으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앞으로 상당 기간 상황은 유동적이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 증폭될 우려가 크다. 어떻게든 경제를 활성화시켜 외부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耐性)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끌 동력이 안 보인다.

## 구성현의 약자 해결

부동산부 차장



### 분양가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재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건축 조합들이 후분양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업비용이 추가로 들더라도 제값을 받았다는 계산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선분양을 할 경우 주변 분양가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3.3㎡당 분양가는 4000만 원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근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만 하더라도 전용 59.97㎡가 20억 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후분양으로 공급할 경우 3.3㎡당 7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강남을 벗어나 서울 동작구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이나 강북권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공급량이 크게 줄고 있다. 부동산114, 주택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만 분양물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고 수도권으로 폭을 넓히면 공급량 하락폭은 더 커진다.

최근 후분양을 권장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데

는 이견이 없다.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분양제는 분양보증도 필요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슷하고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분양가 인상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

분양가 규제에 순응하고 그대로 분양할 경우에는 '로또 분양'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로 율아매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부자들이 집을 사들이며 서민들의 허탈감만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강남 등 중심지역은 서민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지역이 되고,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수요자는 수십대 1의 경쟁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러는 사이 서울 주요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가격 상승세가 불붙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제기되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격언을 정부는 지금이라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carlove@



### 도외시(度外視) ②

불필요한 것은 도외시하며 살 필요가 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할 데에는 도외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할 것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다. 이웃에 대해서도 도외시하고, 국가나 민족, 심지어는 부모에 대해서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도외시하는 것이 간편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진정한 행복은 그런 도외시를 통한 나만의 간편한 생활의 추구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교감하는 정과 싹트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른바, '혼족'들은 남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귀찮아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사람치고 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개나 닭, 소나 말과 같은 동물도 관심을 받고 싶어 애를 태우는데다가 결국은 배반을 당하고, 주변의 사람

을 도외시하다가 결국 사람은 다 떠나보내고서 동물을 안고 살고... 도외시는 스스로 불행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다. 주변을 도외시하려는 생각보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령 이웃이라고 해도 철저히 도외시해야 할 때가 있다. 도저히 소통할 수 없는 상태로 역지를 부리거나 생떼를 쓸 때가 바로 그런 때이다. 자신의 편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남을 도외시하는 일도 없어야겠지만 무리한 행동으로 도외시당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서로 어울려 사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다. 그래서 맹자는 "독락불여중락(獨樂不如眾樂)"이라고 했다. "혼자 즐기는 것이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혼자 집 안에 앉아서 응원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응원하는 것이 훨씬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상암동 경기장에 모여서 대형 스크린을 함께 보며 우리 축구선수들을 응원한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http://www.ETODAY.CO.KR)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어제 엄마랑 은행에 갔습니다”  
엄마가 손만 대니까 돈이 나왔어요!



[손으로 출금 서비스]  
국내 금융사 최초, 손바닥 정맥 인증 창구 출금 서비스

통장, 도장, 신분증 없이도 금융이 쉬워지도록  
창구거래는 손바닥으로 해결하고, 행복한 일상만 즐기세요

# 누리세요, KB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생활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KB 금융그룹